MEXICO

멕시코 개황

2019. 11

멕시코 국기



멕시코 국기를 구성하고 있는 3색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 초록색은 독립과 희망과 천연자원 등을, 하얀색은 종교의 순수성, 통일과 정직 등을, 빨간색은 백인·인디오·메스티소의 통합과 독립을 위해 바친 희생 등을 의미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문장(紋章)은 “독수리가 뱀을 물고 앉아 있는 호숫가의 선인장이 있는 곳에 도읍을 세우라”라고 한 아스테카 제국의 건국 신화를 상징

1810년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일 당시 3색기를 처음 사용하였고 1821년에 국기로 제정, 1937년 수정하였으며 1968년 9월 16일 세목사항(細目事項)을 제정하였고 1984년 2월 8일에 확정

멕시코 지도


México
Phoenix
Mexicali
Tucson
Juárez
Las Cruces
Roswell
Fort Worth
Dallas
Texas
San Angelo
Midland
Abilene
Austin
San Antonio
Houston
Louisiana
Mississippi
Alabama
Hermosillo
Chihuahua
Ciudad Acuña
Piedras Negras
Nuevo Laredo
Monclova
Reynosa
Matamoros
Monterrey
Saltillo
Torreón
Ciudad Obregón
Los Mochis
Culiacan Rosales
La Paz
Durango
Victoria de Durango
Mazatlán
Fresnillo
Aguascalientes
Tepic
Guadalajara
Irapuato
Ciudad Victoria
Tampico
Poza Rica de Hidalgo
Veracruz
Morelia
Uruapan
Ciudad de México
Heroica Puebla de Zaragoza
Coatzacoalcos
Villahermosa
Oaxaca
Acapulco de Juárez
Tuxtla Gutiérrez
Tapachula de Córdova
Guatemala
Honduras
El Salvador
Belize
Campeche
Mérida
Cancún
Gulf of Mexico

Contents

I. 개 관 7

1. 약 황 8
2. 약 사 10

II. 정치 체제 15

1. 행정부 16
2. 입법부 19
3. 사법부 23
4. 정 당 24

III. 정치 정세 29

1. 개 관 30
2. 현 정부 정책 방향 및 전망 31

IV. 대외 정책 33

1. 약 사 34
2. 기본원칙 36
3. 외교조직 및 체제 37
4. 외국공관 설치 및 재외공관 현황 39
5. 국제기구 가입 현황 40
6. 신정부 대외정책 방향 전망 41

V. 경제 정세 45

1. 경제 개관 46
2. 시대별 경제 흐름과 전망 49
3. FTA 추진동향 54





4. 최근 주요 경제지표 56
5. 주요 산업별 동향 및 전망 62
6. 무역 현황 64
7. 외국인투자 현황 68
8. 천연자원 70
9. 마킬라도라 75

VI. 사회 및 문화 77

1. 특징 78
2. 인종 80
3. 언어 81
4. 언론 82
5. 통신 85
6. 교육 87
7. 의료 91
8. 관광 93
9. 문학 94
10. 미술 97
11. 대중음악 100
12. 영화 101
13. 스포츠 103
14. 축제 106
15. 사회간접자본 108

VII. 군 사 111

1. 국방기구 112
2. 병역제도 116
3. 군 편성 118
4. 군사관련 특징 122





VIII. 한국과의 관계 125

1. 멕시코의 대한국 인식 126
2. 한국의 대멕시코 외교정책 127
3. 주요 외교연표 및 역대공관장 129
4. 협정체결 현황 132
5. 정상 및 외교장관 회담 137
6. 최근 주요인사 및 사절단 교류 140
7. 협의체 현황 147
8. 의원친선협회 151
9. 한국-멕시코 무역현황 152
10. 한국-멕시코 투자현황 157
11. 최근 문화교류 활동 162
12. 재외국민 및 후손사회 현황 170
13. 명예영사 172
14. 군사교류 173

IX. 북한과의 관계 177

1. 대북한 정책 178
2. 북한관계 연표 181
3. 협정 체결 182
4. 인사 교류 183
5. 북한 원조 현황 187
6. 통상 관계 187
7. 친북단체 187

I

개 관

1. 약 황
2. 약 사



1. 약 황

ㅇ 국 가 명 : 멕시코합중국(Estados Unidos Mexicanos)

ㅇ 수　　도 : 멕시코시티(인구 약 2,000만명, 고도 2,300미터)

ㅇ 국　　체 : 연방 공화국

- 헌　　법 : 1917.2.5. 개정
- 행정구역 : 31개주, 멕시코시티

ㅇ 정치체제 : 대통령 중심제(3권 분립)

- 대 통 령 :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2018.12월 취임)
- 외무장관 : Marcelo Ebrard(2018.12월 취임)

ㅇ 의　　회

- 상　원 : 총 128석(96석 직선, 32석 비례대표)
  임기 6년(2018년부터 2번 연임 가능)
- 하　원 : 총 500석(300석 직선, 200석 비례대표)
  임기 3년(2018년부터 4번 연임 가능)

ㅇ 면　　적 : 1,964,375㎢(한반도의 약 9배)

ㅇ 인　　구 : 약 1억 2,596만명(2018년)

ㅇ 언　　어 : 스페인어

ㅇ 종　　족 : 혼혈(메스티소) 60%, 원주민(인디오) 30%, 백인 9%, 기타 1%

ㅇ 종　　교 : 가톨릭(89%), 개신교(6%), 기타(5%)

ㅇ 국 경 일 : 9.16.(18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선언)

ㅇ 유엔가입일 : 1945.11.17.(창설회원국)

ㅇ 주요 경제지표 (2018년, IMF, 멕시코 통계청)

- GDP : 1조 2,238억 미불
- 1인당 GDP : 9,698 미불
- 무역 : 수출 4,507억 미불, 수입 4,643억 미불
- 경제성장률 : 2.0%

ㅇ 지 리

- 북으로는 미국과 3,200㎞의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과테말라, 벨리즈와 접경
- 국토 면적은 1,964,375㎢로 세계 14위
- 시에라 마드레 산맥이 남북으로 국토 중앙을 통과하고, 국토의 절반 이상이 고지대로 해발평균은 중부 2,600m, 북부 1,200m
- 해안선의 길이는 9,220㎞로 미주대륙에서 캐나다에 이어 두번째

ㅇ 기 후

- 고도에 따라 다양한 기후분포를 보이는데, 해안지대는 열대성 기후로 연중 고온다습하고, 중부 고산지대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건조한 온대성 기후, 나머지 국토는 아열대 기후
- 멕시코시티는 해발 2,300m에 위치하며, 연중 온난
  - 우기인 6~9월은 기온이 온화하고, 11~1월은 기온이 낮은 겨울 기후이며, 나머지 2~6월은 우리나라의 봄 기후와 비슷
  - 연중 기온은 통상 5℃~25℃ 사이

2. 약 사

ㅇ 멕시코 원주민은 지금으로부터 약 3-4만년전 빙하기에 아시아로부터 이주한 황색인종으로 추정

ㅇ BC 15세기 이후 Olmeca인들이 최초로 조직적인 문화권을 형성, 번영을 누린 후 1521년 스페인에 의해 정복되기까지 Teotihuacan, Maya, Tolteca, Azteca 등 원주민 문화 발달

ㅇ 1519년 스페인의 Hernán Cortés가 함선 11척, 군사 500여명을 이끌고 정복 시작

ㅇ 1521년 스페인 원정군에 의해 Azteca의 수도 Tenochititlan(현 멕시코 시티)이 점령당한 이후 300년간 스페인이 통치

ㅇ 1810년 Miguel Hidalgo 신부(멕시코 독립의 아버지)의 독립선언(9.16.)을 계기로 독립운동 개시

ㅇ 1821년 원정군 지휘관인 Agustín de Iturbide가 스페인을 배반, 독립군에 협력함에 따라 스페인 부왕이 멕시코의 독립을 인정

ㅇ 1822년 Iturbide가 Agustín 1세 황제로 취임하였으나 1823년 축출

ㅇ 1824년 공화정 수립, Guadalupe Victoria 장군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

ㅇ 1836년 텍사스 분리 독립

ㅇ 1846년 미국-멕시코 전쟁에서 패배, California, Texas 상실

- 1854년 1,000만불에 Arizona, New Mexico를 미국에 매각

ㅇ 1858년 최초의 원주민 출신 Benito Juárez 대통령 선출

ㅇ 1864년 프랑스군 멕시코 점령, Napoleon 3세가 내세운 Maximilian 황제 통치

ㅇ 1867년 멕시코군에 의해 Maximilian 황제가 처형된 후, 1871년 Benito Juárez 대통령 재선(1872년 재직중 서거)

ㅇ 1876년 Porfirio Díaz 독재정권 수립, 1911년까지 35년간 통치

ㅇ 1910년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노동자, 농민 중심의 멕시코혁명 발발

- Porfirio Díaz 대통령 1911.5월 망명

ㅇ 1917년 혁명헌법 제정

ㅇ 1920년 Alvaro Obregón 장군, 대통령 취임

- 의회 존중, 농지개혁 추진, 노동조합 장려, 교육 개혁에 주력함으로써 근대화 기초 구축

ㅇ 1934년 Lázaro Cárdenas 장군, 대통령 취임

- 농지 개혁 추진 및 석유산업 국유화 단행(1934.3월)

ㅇ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추축국에 선전포고

- 전쟁 특수로 경제발전의 기반 마련

ㅇ 1946년 Miguel Alemán Valdés 대통령 취임

-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 본격적인 공업화 시대로 전환

ㅇ 1968.10.2. 경찰이 Tlatelolco 광장에서 진행된 학생들의 민주화시위에 발포, 공식사망자 25명, 인권단체는 350명 사망 추정(2009년부터 추모식 거행)

ㅇ 1968.10월 올림픽 개최

ㅇ 1985.9.19. 대지진(진도 8.0, 사망자 약 1만명)

ㅇ 1986.5-6월 월드컵축구대회 개최

ㅇ 1988.12.1. Carlos Salinas de Gortari 대통령 취임

- 과감한 시장개방(NAFTA 체결 등) 및 민영화정책 시행

ㅇ 1994.1.1. 치아파스 지역에서 사회·경제개혁을 요구하며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 무장 봉기

- 치아파스 지역은 전체인구의 25%가 원주민인 최빈곤 지역

ㅇ 1994.12.1. Ernesto Zedillo Ponce de León 대통령 취임

- 개방정책의 지속추진과 더불어 긴축재정, 물가안정, 구조 조정을 통한 경제 안정화에 주력

ㅇ 2000.12.1. Vicente Fox Quesada 대통령(PAN: 국민행동당) 취임, 71년만의 정권교체 실현

ㅇ 2006.12.1. Felipe Calderón Hinojosa 대통령 취임

ㅇ 2012.12.1. Enrique Peña Nieto 대통령(PRI: 제도혁명당) 취임, 12년만의 정권교체 실현

ㅇ 2018.12.1. 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Morena당) 취임

- 진보성향 대통령 당선, 71년간 장기 집권하고, 2012년 재집권에 성공했던 PRI당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진 것으로 평가

멕시코의 노벨상 수상자

현재까지 멕시코는 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음. 수상자는 Alfonso García Robles(평화상), Octavio Paz Lozano(문학상), Mario José Molina Henríquez(화학상)로 그중 Alfonso García와 Octavio Paz는 외교관 출신

○ 알폰소 가르시아 로블레스(Alfonso García Robles, 1911-91)
- 1911.3.20. Michoacán주 Zamora 출생. 멕시코 외무장관, 주브라질 대사 등 역임. 중남미대륙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틀라텔롤코 조약(1967)'에 중남미 22개국을 가입시키면서 반핵과 군축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1982년 노벨 평화상 수상

○ 옥타비오 파스 로사노(Octavio Paz Lozano, 1914-98)
- 1914.3.31. 멕시코시티 출생. 시인이자 비평가이며 외교관으로 세계 각지를 다니며 시작(詩作)에 열중. 주인도대사 등 역임. 파리에서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여하기도 함. 시집으로《동사면(東斜面), Ladera este》등이 있으며 1990년 노벨문학상 수상

○ 마리오 호세 몰리나(Mario José Molina, 1943-)
- 1943.3.19. 멕시코시티 출생. 1972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음. 염화플루오르화탄소(CFC) 기체가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크루첸(Crutzen), 롤런드(Rowland) 등과 함께 1995년 노벨화학상 공동 수상

II

정치 체제

1. 행정부
2. 입법부
3. 사법부
4. 정 당



1. 행정부

가. 조 직

○ 구 성

- 3권분립 원칙하에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 대통령 선거 및 임기

- 직접, 보통선거
- 임기 6년, 연임 금지(부통령 및 수상제도는 없음)
- 대통령 유고시 의회에서 임시 대통령 선출

나. 행정수반 : 대통령(Presidente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 성명 :

-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 2018.12.1. 취임

다. 대통령 약력

○ 생년월일 : 1953.11.13.(타바스코주 출생)

○ 학　력

- 멕시코국립자치대학(UNAM) 학사(정치, 공공정책학)

ㅇ 경력

- 멕시코시티 시장(2000-2005)
- 대통령 선거 출마 및 낙선(2006)
- 대통령 선거 출마 및 낙선(2012)
- MORENA당 창당(2014)
- MORENA 당대표(2015-2017)

ㅇ 가족관계 : 부인(Rocío Beltrán Medina)과 사별 후 현 부인(Beatriz Gutiérrez Müller, 작가 겸 교수)과 2006년 재혼(전처와의 사이에 3남, 현 부인과 1남)

라. 정부 각료 명단('19.10월 기준)

직 위	이 름
내무부 장관 Secretaria de Gobernación (SEGOB)	Olga Sánchez Cordero
외교부 장관 Secretario de Relaciones Exteriores (SRE)	Marcelo Ebrard
국방부 장관 Secretario de Defensa Nacional (SEDENA)	Luis Crescencio Sandoval González
해군부 장관 Secretario de Marina (SEMAR)	José Rafael Ojeda Durán
치안부 장관 Secretario de Seguridad y Protección Ciudadana(SSPC)	Alfonso Durazo
재무부 장관 Secretario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SHCP)	Arturo Herrera Gutiérrez

직 위	이 름
경제부 장관 Secretaria de Ecomonía (SE)	Graciela Márquez Colín
복지부 장관 Secretaria de Bienestar (BIENESTAR)	María Luisa Albores
환경·자원부 장관 Secretario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SEMARNAT)	Victor Manuel Toledo
에너지부 장관 Secretario de Energía (SENER)	Rocío Nahle
농·축·수산부 장관 Secreta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Desarrollo Rural, Pesca y Alimentación (SAGARPA)	Victor Villalobos
통신·교통부 장관 Secretario de Comunicaciones y Transportes (SCT)	Javier Jiménez Espriú
공공기능부 장관 Secretaria de la Función Pública (SFP)	Irma Eréndira Sandoval
교육부 장관 Secretario de Educación Pública (SEP)	Esteban Moctezuma
보건부 장관 Secretario de Salud (SALUD)	Jorge Alcocer Varela
노동·사회보장부 장관 Secretaria del Trabajo y Previsión Social(STPS)	Luisa María Alcalde
국토개발장관 Secretario de Desarrollo Agrario, Territorial y Urbano (SEDATU)	Román Meyer Falcón
관광부 장관 Secretario de Turismo (SECTUR)	Miguel Torruco Márquez
문화부 장관 Secretaria de Cultura (CULTURA)	Alejandra Frausto
대통령 비서실장 Jefe de la Oficina de la Presidencia	Alfonso Romo

2. 입법부

가. 구 성

ㅇ 상 원(Cámara de Senadores)

- 의 석 : 128석(96석은 32개주에서 각 3명씩 직선하고, 나머지 32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
- 임 기 : 6년(2018년부터 2번 연임 가능)

ㅇ 하 원(Cámara de Diputados)

- 의 석 : 500석(300석은 직선, 200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
- 임 기 : 3년(2018년부터 4번 연임 가능)

ㅇ 회 기

- 정기회기 : 연 2회(1차 : 9.1.~12.15., 2차 : 2.1.~4.30.)
- 개원시 대통령이 참석, 국정 전반에 관한 교서 발표
- 휴회중에는 37명(18명의 상원의원, 19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되는 상설위원회(Comisión Permanente)가 기능 대행

나. 정당별 의석 분포(2019.10월 현재)

(상원)

당명	정치 성향	지역구 의석	비례대표 의석	정당별 총합	연합별 총합/ 비율
MORENA(국가재건운동당)	진보	49	10	59	70(54.7%)
PT(노동당)	진보	5	1	6	
PES(사회회합당)	진보	2	3	5	
PAN(국민행동당)	보수	18	6	24	36(28.1%)
PRD(민주혁명당)	진보	2	1	3	
MC(시민운동당)	진보	7	2	9	
PRI(제도혁명당)	중도	8	6	14	14(10.9%)
PVEM(녹색당)	보수	4	3	7	7(5.5%)
무소속	-	1	0	1	1(0.8%)
총 의석수		96	32	128	128(100%)

(하원)

당명	정치 성향	지역구 의석	비례대표 의석	정당별 총합	연합별 총합/ 비율
MORENA(국가재건운동당)	진보	166	93	259	318(63.7%)
PT(노동당)	진보	31	3	34	
PES(사회회합당)	진보	25	0	25	
PAN(국민행동당)	보수	39	39	78	117(23.4%)
PRD(민주혁명당)	진보	6	5	11	
MC(시민운동당)	진보	17	11	28	
PRI(제도혁명당)	중도	9	38	47	47(9.4%)
PVEM(녹색당)	보수	6	7	13	13(2.6%)
무소속	-	0	4	4	4(0.8%)
총 의석수		299	200	499	499(100%)

※ 하원 의석수는 총 500석이나, 현재 1인이 건강상 문제로 사망하여 공석

다. 기 능

ㅇ 상 원

- 일반 입법 활동
- 외교정책 검토
- 행정부 주요인사(장관, 대사, 장성 등) 임명 인준
- 대통령의 전쟁선포 사전승인(하원의 동시 승인 필요)
- 대통령 해외방문 승인
- 군대의 해외파견 승인
- 조약 비준

ㅇ 하 원

- 일반 입법 활동
- 예산 심의
- 대통령의 전쟁선포 사전 승인

라. 연 혁

ㅇ 1823	제헌의회 소집
ㅇ 1824.10월	헌법 공포(상·하 양원제 의회 규정)
ㅇ 1825.1월	상·하 양원 개원
ㅇ 1834.1월	산타 아나 대통령, 의회 해산
ㅇ 1845	연방주의자와 중앙주의자간 대립으로 상원 폐지
ㅇ 1857	헌법으로 상원 폐지

ㅇ 1875 헌법 개정을 통해 상원 부활

ㅇ 1917 혁명헌법에 의해 상·하 양원제 확립

마. 지방의회

ㅇ 각 주에는 별도의 의회(Congreso Local)가 있으며, 인구 규모별로 21명~75명의 주의원(Diputado Local)들이 있음.

3. 사법부

가. 구 성

○ 대법원(Suprema Corte de Justicia)

-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대법관 임기 15년, 연임 불가)
-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원 인준 필요
- 대법원장 임기는 4년이며 연임 불가
- 대법원장은 임기가 개시되는 해 1월 1일 대법관회의에서 선출

○ 고등법원

- 11개 순회재판소로 구성
- 6개는 일반, 민사,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5개는 인권보호 담당

○ 지방법원 : 각 지방 소재

*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미국식으로 대법원에서 헌법사건 담당(대법원이 맡는 전체 사건 중 헌법사건이 약 40%)

나. 주요인사

○ 대법원장 : Arturo Zaldivar Lelo de Larrea(2019.1.2. 취임)

4. 정 당

가. 국가재건운동당(MORENA : 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

1) 약 사

- 국민행동당(PRD)의 2012년 대선후보였던 López Obrador가 2014.7월 창당한 진보성향의 정당
-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 표출에 힘입어 2015년 6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석 36석을 확보하면서 약진
- 이러한 흐름은 2018.7월 대선에서 López Obrador가 약 53.2% 득표율로 신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더욱 강화
- 아울러, 2018년 총선에서도 MORENA-PT-PES당 연합이 상하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특히 하원에서는 MORENA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

2) 이념적 스펙트럼

- 좌파 성향

3) 지지 기반

- 청·장년층, 중·하층민, 농민·노동자, 토착민 등

나. 국민행동당(PAN : Partido de Acción Nacional)

1) 약 사

- Manuel Gómez Morin이 1929년부터 정당설립을 위한 의지를 집결하기 시작, 1939년 가톨릭 보수주의자, 북부지방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창당
- 2000년 7월 대선 승리로 최초 집권(Vicente Fox 대통령)
- 2006년 12월 재집권, Felipe Calderón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나, 2012년 선거에서 패배
- 2018년 7월 총선에서 상하원 모두 원내 2당을 차지

2) 이념적 스펙트럼

- 중산층, 실업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중도우파 성향

3) 지지 기반

- 청·장년층, 중산·상류층, 민간기업 부문, 특히 누에보레온 등 북부·중서부지역에서 강세

다. 제도혁명당(PRI :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1) 약 사

- 1929년 이래 2000년까지 71년간 집권하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1994년 경제위기 발생, 장기집권에 따른 보수화,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으로 인해 2000년 7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

ㅇ 2007년 지방선거 승리, 2009.7월 총선 및 2012.7월 대선 승리를 통해 2012년 정권 탈환

ㅇ 그러나, 뿌리깊은 부정부패 및 실정(범죄 급증, 경제 침체 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만으로 2018년 7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을 뿐 아니라 총선에서도 상·하원 모두 최대 다수당 자리를 내주고 원내 3당을 차지

2) 이념적 스펙트럼

ㅇ 멕시코 혁명 이념을 표방하며 중도 및 좌·우파 공존과 문호개방정책 추진

3) 지지 기반

ㅇ 장년층, 중산계층, 공공부문 종사자

라. 민주혁명당(PRD : 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

1) 약 사

ㅇ 1988년 Cuauhtémoc Cárdenas(Lázaro Cárdenas 전 대통령의 아들)가 제도혁명당(PRI) 대선후보 경선에서 Carlos Salinas de Gortari 전 대통령에 패배한 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PRI의 부패와 권위주의에 반발, 탈당하여 설립

ㅇ 2012년 7월 선거에서 패배한 데 이어 당 지도부와 López Obrador 전 대선후보 계열간의 알력으로 분열

- López Obrador는 2014년 7월 국가재건운동(MORENA)을 창당하고, 2018년 대선후보로 재출마 및 당선

2) 이념적 스펙트럼

ㅇ 좌파 성향

3) 지지 기반

ㅇ 장·노년층, 중·하층민, 농민·노동자, 토착민, 특히 멕시코시티를 포함한 중부지역(48%), 남부지역(42%)에서 강세

마. 기타 군소 정당

1) 녹색환경당(PVEM : Partido Verde Ecologista de México)

ㅇ 환경보호를 기치로 창당되었으나, 정치이념에서는 우파 성향

ㅇ 2012년 7월 총선 이후 PRI와 연합, 당세를 확장하였으나, 2018년 7월 총선에서 동 연합이 참패하면서 연합이 해체되고 독립 활동 의지 표명 / 정책별로 MORENA당과도 연합

2) 시민운동당(Movimiento Ciudadano)

ㅇ 1999년 시민사회세력과 구 PRI당 인사들이 Convergencia por la Democracia당(민주수렴당)을 창설하였으나, 2011년 시민운동당으로 명칭 변경

3) 노동당(PT: Partido del Trabajo)

ㅇ 여러 사회단체의 연합으로 창당

- 2018년 7월 대선 및 총선에서 MORENA당 및 PES당과 연합을 구성, 승리하면서 상원 6석, 하원 28석을 확보하고, 원내 최대 다수 연합을 차지

4) 사회회합당(PES: Partido Encuentro Social)

- 2006년 창당, 복음주의 개신교 세력이 중심
- 2018년 7월 대선 및 총선에서 MORENA당 및 노동당과 연합을 구성, 승리하면서 상원 5석, 하원 30석을 확보하고, 원내 최대 다수 연합을 차지하면서 당세를 크게 확장

III

정치 정세

1. 개 관
2. 현 정부 정책 방향 및 전망



1. 개 관

■ 2018.7.1. 대선에서 진보 성향의 로페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 야당 연합 후보가 약 53.2%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여야 정권 교체를 달성, 2018.12.1. 취임

- 89년만의 진보정권으로, 국내적으로는 불균형 해소·인권 강화, 대외적으로는 불간섭주의 등 표방
- 동 결과는 페냐 니에토(Peña Nieto) 정부의 부정부패 및 실정(범죄 급증, 경제 침체 등)에 대한 멕시코 국민의 높은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

■ 아울러, 같은 날 실시된 총선에서도 국가재건운동당(MORENA)-노동당(PT)-사회회합당(PES)이 상·하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특히 하원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이 소속된 MORENA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상·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 연합을 기반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 부패 타파 등 개혁정책을 강력 추진 중

- 특히, △부정부패 척결 및 정부지출 절감, △국가방위대 신설을 통한 치안 확보, △멕시코 남부지역과 중미국가의 경제발전(중미통합개발계획) 등 정책에 우선순위 부여
- 다만, △낮은 경제성장률(상반기 경제성장률 0.2%), △만연한 빈곤과 소득 불평등, △제한된 국가 재정, △악화되고 있는 치안상황 등은 제약 요소로 작용

2. 현 정부 정책 방향 및 전망

■ (종합)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 및 정부지출 절감, △멕시코 남부지역과 중미국가 경제발전(중미통합개발계획), △국가방위대 신설을 통한 치안 확보 등 정책을 주요 당면 과제로 추진 중

ㅇ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반부패 및 치안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는 <13대 정책 추진 우선순위> 및 <반부패 및 긴축계획 관련 신정부 가이드라인 50조>를 발표

- (13대 정책 추진 우선순위) △대통령 연봉 60% 삭감 및 고위 공무원 연봉 삭감, △공공치안부 신설, △부패행위 관련 대통령 특권면제 폐지, △부패, 원유절도 및 부정선거를 중범죄 유형에 포함, △불필요한 정부예산 삭감, △대통령 경호팀을 국방부 소속으로 이전, △저수지 민영화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 철회,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개혁 무효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임기 절반(3년) 후 국민 신임투표 실시, △행정부의 대국민정보공개 확대, △국경지역 최저임금 인상, △행정부 예산 긴축계획 시행
- (신정부 가이드라인 50조) △대통령 및 고위공무원 연봉 삭감, 특권 폐지 및 축소, △전 공직자 재산공개 등 공직자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 △행정부 예산 삭감 등
  - 이와 관련, 여당 연합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하원 역시 행정부 긴축계획 시행 및 특권 철폐 등에 대한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의회 예산 감축을 승인
- (행정) 멕시코시티에 집중된 행정력을 분산하여 전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행정기관 지방 이전 추진

■ (1차 국정보고회)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19.9.1. 제1차 국정보고회를 개최, △부정부패 척결 및 특권 폐지, △대외정책, △경제개발 정책, △사회복지 및 치안정책 분야에 걸쳐 취임 후 9개월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발표

ㅇ (부정부패 척결 및 특권 폐지) △대통령 및 고위인사 면책특권 폐지 추진, △정부 및 의회의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 긴축정책 시행, △대통령 관저 문화공간으로 개방, △대통령 경호실 폐지, △전직 대통령 연금 지원 폐지, △공무원 연봉 삭감, △정부보유 항공기 및 헬기 판매, △공무출장 제한, △경호 및 홍보비용 감축 등 성과 강조

ㅇ (대외정책) 미국과의 이민 협상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불법이민을 저지하는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관세 부과 사태 및 정치경제적 위기를 타개했다고 홍보

ㅇ (경제개발 정책) 경제성장률이 높지는 않으나 경기침체는 없다면서 양적 성장보다는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가 중요하다고 강조

ㅇ (사회복지 및 치안정책) 취약계층·낙후지역에 사회복지 재원을 집중하고, 치안질서의 회복을 '삶의 질' 보장 등 범죄에 가담할 유인을 없애는 정책 추진

■ 향후에도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정부패 척결 및 특권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치안확보 및 국경지역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우선 사회보장 프로그램 강화 등 핵심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

IV

대외 정책

1. 약 사
2. 기본원칙
3. 외교조직 및 체제
4. 외국공관 설치 및 재외공관 현황
5. 국제기구 가입 현황
6. 신정부 대외정책 방향 전망



1. 약 사

○ 멕시코는 독립 초기 구미열강의 침략과 이권침탈로 인해 영토의 절반 가량을 상실하고 국부를 수탈당한 경험으로 인해 혁명 이전부터 방어적 외교 전개

○ 멕시코혁명 이후 불간섭주의 원칙에 입각한 '카란사 독트린'(1915년)과 '에스트라다 독트린'(1930년) 천명

○ 보편주의 외교기조 하에 공산국가를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 유지 원칙 표명(비동맹에는 옵서버로 참가)

○ 1946년 UN 창설회원국으로서 냉전체제에서 파생되는 어떠한 분쟁에도 개입하지 않는 것을 외교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집단안보 명목으로 중남미에서 정당화되었던 일방적 개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 견지

- 멕시코는 1902년 쿠바와 수교 이후, 1959년 쿠바 공산정권 수립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지역에서 유일하게 쿠바와 중단 없이 외교관계를 지속
- 쿠바 사회주의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1964년 미주기구(OAS) 결의안에도 반대

○ 다자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 멕시코는 중남미 내 핵무기 사용금지를 골자로 한 1967년 '틀라텔롤코 조약(Tlatelolco Treaty, Tratado de Tlatelolco)' 체결을 주도하는 등 군축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멕시코의 Alfonso García 대사는 조약 성사에 기여한 공로로 1982년 노벨평화상 수상

○ 1977년 멕시코는 스페인의 프랑코 장군 사망 이후 스페인 민주 정권과 외교관계 재개

ㅇ 1979년 멕시코는 베네수엘라와 함께 중남미국가에 특혜가격으로 석유를 공여키로 하는 '산호세 협정(Acuerdo de San José)'에 서명

ㅇ 1982년 중미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나마와 '콘타도라(Contadora)' 그룹 결성

- 중미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외교적 중재와 노력을 강화키로 합의하고, 일방적·군사적 해결을 추구한 레이건 행정부의 대중미 정책에는 반대 입장 표방

2. 기본원칙(헌법 제89조에 명문화)

- ㅇ 민족자결주의
- ㅇ 불간섭주의
- ㅇ 분쟁의 평화적 해결
- ㅇ 무력위협 또는 무력사용 금지
- ㅇ 모든 국가의 법적 평등
- ㅇ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 ㅇ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노력

3. 외교조직 및 체제

ㅇ 본부 : 외교부 수장인 장관의 지휘 아래 지역·이슈별 업무를 담당하는 4명의 차관과 기획관리실장, 법무실장, 국제개발협력청장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북미국, 중남미카리브국, 아태국 등 지역국과 유엔국, 재외동포국, 법률국 등 기능국으로 구성

※ 주요 간부

- 장관 : Marcelo Ebrard Casaubon
- 양자차관 : Julian Ventura Valero
- 북미차관 : Jesus Seade Kuri
- 중남미카리브차관 : Maximiliano Reyes Zuniga
- 다자인권차관 : Martha Delgado Peralta

ㅇ 소속 기관 : 외교원(Instituto Matias Romero), 해외동포협회 외에 각 지방정부에 외교부 파견 사무소 운영

4. 외국공관 설치 및 재외공관 현황

ㅇ 멕시코 내 외국공관 : 미국, 영국, 스페인, 인도, 한국, 북한 등 136개국 상주 대사관 소재

ㅇ 멕시코의 재외공관

- 상주 공관 : 미국, 영국, 스페인, 인도, 한국(북한 겸임) 전 세계 80개국에 상주공관 운영
- 대표부 : 유엔, OECD, 유네스코 등 7개 국제기구에 대표부 운영
- 영사관 : 보스톤, 애틀랜타, 댈러스, 휴스턴, 라스베가스 등 미국 내 50개 영사관을 포함하여 전 세계 주요 도시에 67개 영사관 운영

5. 국제기구 가입 현황

○ 정치안보 : 유엔, 국제의원연맹(IPU),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국제사법재판소(ICC), 인터폴,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보건기구(WHO),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핵무기금지기구(OPANAL), G8+5, G15, G20, G24, 국제이주기구(IOM) 등

○ 지역기구 : 미주기구(OAS), 태평양동맹(PA),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LAIA), 카리브국가연합(AEC), 카리브개발은행(CDB), 카리브관광기구(CTO), 중미경제통합은행(BCIE), 중미통합체제(SICA), 라틴아메리카 카리브공동체(CELAC), 라틴아메리카 개발은행(CAF),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등

○ 경제금융 :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B), 세계관세기구(WCO), 미주개발은행(ID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농협개발기금(IFAD),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개발협회(IDA),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식량농업기구(FAO) 등

○ 교통통신 :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수로기구(IHO), 세계기상기구(W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통신연합(ITU), 국제우편연맹(UPU),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 국제통신위성기구(ITSO), 국제이동위성기구(IMSO) 등

○ 문화체육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6. 신정부 대외정책 방향 전망

가. 대외정책 기본입장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외공관장회의(2019.1.7.-11.)에서 멕시코의 대외정책 기본입장으로 △타국 문제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 개발협력, △인권 및 평화 증진을 표명

- 또한, 재외국민 권익 및 복지 증진, 해외투자 유치 및 관광 활성화, 문화유산 홍보, 외교적 우호관계 증진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

○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각종 계기 타국 문제 불간섭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부패척결 및 멕시코 남부지방 개발 등 대내정책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대외정책을 조정하는 경향

○ 대외정책 최우선순위 중 하나인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멕시코 남부지방과 중미 3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본적 이민 수요 감축을 목표로 '중미통합개발계획'을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에 역량 집중

나. 대미 정책

○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중미발 불법이민 대응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여 멕시코 남부국경 관리 강화, 미국 망명신청자들의 멕시코 임시체류 승인 등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미국 정부에 대해 미국 거주 멕시코인 권리 보장을 강조

○ (미국측 관세부과 조치계획 발표 경위) 대선후보 시절부터 불법 이민자 차단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에

대해 중남미 불법이민자 유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면서, 멕시코가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19.6.10.부터 멕시코산 수입 전품목에 대해 5% 관세부과를 시작으로 매월 5%씩 인상하여 최대 25%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2019.5.30.)

ㅇ (양국간 협상결과)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즉각 미국에 멕시코 외교장관 및 경제장관 등 협상단을 파견,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미국으로의 불법이민 유입 방지 방안에 합의하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발표(2019.6.7.)

ㅇ (향후 합의 이행 동향) 멕시코 정부는 양국간 합의 타결 이후 △국가방위대 배치 등 멕시코 남부국경 관리 강화, △이민청 인력 보강, △멕시코 남부지역 경제개발 프로그램 “생명의 씨앗 뿌리기(Sembrando Vida)” 확대 시행, △국경지대 보호소 운영, △중미통합개발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등 다방면의 노력 전개 중

다. 대중남미 정책

ㅇ 대중남미 정책의 기본 방향은 동 지역의 발전 및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에 두고 있으며, 지역안보, 불법행위 근절 및 이민문제 등에 있어, 정책 개발 등 역내차원의 장기적 전략 마련에 관심 다대

- 특히, 멕시코 남부지방 및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지역 개발을 골자로 하는 <중미통합개발계획>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의 핵심 사업

ㅇ 한편,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역내 및 국제적 이슈에 대해 불간섭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역내 이슈인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미국, EU 및 중남미 다수 국가들과 상이한 입장을 취하여, 외국의 개입을 통한 대통령 선거 실시 방안 등에 반대하며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입장을 지지

라. 대아시아 및 중국 정책

○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아시아 국가들 중 중국, 일본, 인도와 전략적 관계구축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는 경제적 교류 확대를 희망하면서도 대중국 적자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

※ 중국의 대멕시코 영향력 확대와 멕시코 입장

- 중국은 브렉시트,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진출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며, 멕-중국간 교역규모는 2017년 820억불, 2018년 907억불을 기록

  * 멕시코에는 총 986개의 중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중국은 자동차, 기간시설, 건설 등 분야의 투자에 관심 다대

- 멕시코는 교역 다변화 측면에서 중국과의 교역증대에 관심이 있으나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중국과의 무역적자 해소에 관심 다대

  * 한편, 중국투자에 대해 멕시코측은 다소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바, 중국이 자본, 기술, 인력을 패키지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현지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마. 대유럽 정책

○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의 대유럽정책의 기본은 국제적 원칙과 가치에 기초한 국제질서 강화에 있으며, 특히, 독일,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중점

※ 멕시코는 2018.4월 EU와 FTA개정협상을 완료함에 따라, 향후 EU와의 새로운 통상 협력관계를 추구해 나갈 예정

바. 대중동 정책

○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중동지역에서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멕시코의 기존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

사. 대UN 정책

○ 멕시코 정부는 UN이 추구하는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으며,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

V

경제 정세

1. 경제 개관
2. 시대별 경제 흐름과 전망
3. FTA 추진동향
4. 최근 주요 경제지표
5. 주요 산업별 동향 및 전망
6. 무역 현황
7. 외국인투자 현황
8. 천연자원
9. 마킬라도라



1. 경제 개관

■ 멕시코 경제는 20세기에 들어 3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음.

ㅇ 농업경제에서 제조업경제로 전환

- GDP에서 농업비중이 1940년대 19%에서 1999년 5%로 축소

ㅇ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

- 1980년대 초반에 수입대체형 산업전략 포기, 무역장벽 완화 및 수출증대 추진

ㅇ 국영기업에서 사유기업으로 전환

- 1990년대에 공기업 대부분을 민영화

■ 198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통해 멕시코 경제는 개방화, 탈규제화, 민영화되면서 성장하였으나, 수출가공 산업 위주로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국민기업 육성 미흡 등 구조적 한계가 존재

ㅇ 멕시코 경제 강점 : △ 대외 개방에 따른 유수한 외국 기업 유치 △ 풍부한 천연 자원 및 숙련되고 유능한 노동력 △ 첨단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 △ 비교적 많은 중소기업의 존재(노동자의 80%가 중소기업에 종사) 등

ㅇ 멕시코 경제 약점 : △빈부 격차(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42%; GDP 대비 근로소득 34.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 25%에 이르는 지하 경제 △ 과도한 미국 의존적 경제(대미 수출의존율 76%, 대미 교역의존율 61%) 등

■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술개발 등 혁신 능력이 취약하고, 경제 전반의 대미의존 과다로 대외충격에 취약하여 80~90년대에는 경제위기 반복

※ 멕시코의 경제위기 : 1982년 라틴아메리카 외채위기의 진원지, 1987년 '블랙먼데이', 1994년 외환위기(테킬라 파동), 2001년 미국경기 침체에 따른 동반침체,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침체

■ 세계적인 금융기관과 언론 등에서 멕시코의 잠재력을 주목하면서 세계경제의 새로운 생산 공장으로 부상하는 차세대 강국으로 빈번히 언급

○ 멕시코는 2010년 1월 칠레의 OECD 가입이 확정되기 전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한 OECD 회원국(94년 가입)

○ 미국의 경제전문 사이트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향후 10년간 주목할 나라로 지목한 MAVINS(Mexico, Australia, Vietnam, Indonesia, South Africa)의 일원

※ 2013년 7월 미국 전략정보연구소 스트랫포(Stratfor)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세계 제조업 생산기지로 불리던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멕시코 등 16개국을 선정(Post-China 16)

※ 멕시코는 2019 기업활동 하기 좋은 나라(Doing Business 2019) 순위에서 54위로 전년도 대비 5단계 하락했으나, 중남미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World Bank)

※ 2050년 PPP 기준 경제규모 세계 7위 전망(PWC)

○ 2015년부터 국제유가 하락, 미달러화 대비 페소화 가치 하락, 중국 경제성장 하락 및 증시 폭락 등 국제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2012-18년 페냐 니에토 정부 기간 에너지·통신 등 개혁정책을 시행, 비교적 건실한 거시경제지표 유지

○ 2018년 12월 노동자·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진보성향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신정부가 출범했으며, 신정부는 기존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80년대 이전 멕시코 경제의 6% 성장률이 2% 저성장에 머물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개방시장경제정책의 근간은 유지하되 석유 등 핵심산업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및 국내산업 육성, 최저임금 및 사회복지 강화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 정부·민간·외국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4% 성장률 목표 달성을 추진중

2. 시대별 경제흐름과 전망

가. 2000년 이전

○ 1982년 12월에 출범한 Miguel de la Madrid 행정부는 1940년대부터 추진해 오던 수입대체개발전략을 포기하고 시장개방을 통한 외부지향적 개발전략으로 선회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1986년 8월 GATT 가입으로 구체화

○ Salinas 정부(1988~1994)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로 대변되는 과감한 시장개방 및 민영화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동 기간 중 멕시코 경제는 세계경제로의 통합 가속화

○ 정권교체기인 1994년 12월 페소화 폭락사태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던 Zedillo 정부는 그간 금융위기 극복 및 재발방지에 정책의 우선점을 두고 자유변동환율제 채택, 강력한 긴축정책 추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미국경기 호황에 힘입어 2000년 6.9%의 성장을 기록

- 2000년 Fox 정부로의 정권교체 시에는 20년만에 최초로 경제위기를 동반치 않은 순탄한 정권교체 실현

나. 2000년대 초반

○ 2000년 12월 취임한 Fox 정부도 출범 이후 Zedillo 정부의 긴축정책, 적극적인 외자유치,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정책으로 마련된 건실한 성장기반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적으로 빈곤퇴치, 고용창출, 부패척결 및 재정적자 축소, 대외적으로 무역적자 축소, 시장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

ㅇ NAFTA 발효(1994년) 이후 멕시코 경제의 대미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9.11 사태 이후 미국의 경기침체와 멕시코의 내수 위축으로 2001년 -0.4%, 2002년 0.9%, 2003년 1.16%로 낮은 성장률을 보여 집권 3년간의 경제실적은 1930년대 라사로 까르데나스 정권 이후 최악

ㅇ 2004년 멕시코 경제는 미국 등 세계경제의 회복추세와 국제원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4.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5년에는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2.8%에 그쳤으나, 2006년 4.8%로 본격적인 성장세를 회복하다가 미국경기 침체와 세계적인 원자재·곡물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07년 다시 3.3% 성장으로 둔화

- 2001-2006년 경제개발계획, 에너지산업 개혁 등 주요 추진사업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

ㅇ 2006년 12월 출범한 Calderón 정부는 초기에 세제를 개편(공무원 연금법(ISSSTE) 개정 및 세제개혁 단행)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을 구축함에 따라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이 멕시코의 국가위험도를 역대 최저치로 평가

-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2009년 4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발생, 마약과의 전쟁 격화,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수출의 84%, 외국인투자의 약 절반), 원유 판매대금에 의존하는 세수구조 등 구조적 특성까지 겹쳐 최악의 경제 침체 경험
- 2008년 10월 에너지개혁안, 2009년 11월 세제개혁안의 의회 통과는 재계와 야당의 반대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Calderón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

다. 페냐 니에토 정부

○ 2012년 12월 출범한 페냐 니에토 정부는 △ 통신, 에너지, 조세, 금융, 노동 등 제반 분야 개혁 가속화를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켜 중장기적 견실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 더 많은 중산층을 육성하여 내수 시장의 활성화 도모, 기존의 대외 개방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태평양 동맹(PA)을 통해 수출 및 경제협력 다변화 등을 지속 추진

< 페냐 니에토 정부 분야별 주요 개혁 조치 내용 >

분 야	주요 내용
에너지 (13.12.21 대통령 공포)	석유에너지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고 PEMEX 운영이사회에서 석유 노조 배제 등 ※ 에너지는 과거 75년간 멕시코국영석유공사(PEMEX)가 독점
교 육 (13.2.25 대통령 공포)	실적기반 교원 임명 및 평가제 도입, 학교 운영에 자율권 부여, 전일제 수업 학교 증설 추진 등 ※ 그간 교원노조의 반대로 미실현
방송통신 (13.6.10 대통령 공포)	방송통신 분야에 외국인투자 허용, 관련 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신규 감독기관 설치 등 ※ 방송(Televisa) 및 통신(America Movil) 시장의 독과점 구조 타파
조 세 (13.12.9 대통령 공포)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인상, 세제 간소화(현금입금세 등 폐지), 탄산음료 및 정크푸드에 대한 과세 도입 등 ※ 증세를 통한 정부지출 확대 추진
노 동 (12.11.29 대통령 공포)	파견근로제(아웃소싱) 및 임시채용제 신설, 노조 운영 투명성 강화 등 ※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13년중 세부 시행법령 마련

○ 상기 개혁조치 이행으로 인한 효과로 특히, 에너지 분야 전기 및 자동차 연료 등 요금 인하,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장거리 전화요금 폐지, 휴대폰

전화 요금 인하 등의 실질적 효과로 2015년말 2.13%의 사상 최저 물가 상승율 기록

- 2014년부터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종전 유가수입이 정부 재정의 1/3차지)에 대해 2015년 및 2016년 정부 재정지출 감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였고, 달러화 대비 페소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에 대해 외환보유고 매각을 통한 환율유지, 해외거주자에 의한 대규모 송금,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 등 세계경제의 위험성 속에서도 건실한 거시경제 지표 유지

○ 2017.1.20., 미국의 TPP 탈퇴, NAFTA 개정협상 요구 등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멕시코 경제에 불확실성 증가

- 미국이 무역적자 축소, 자국의 고용·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NAFTA 재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 멕시코는 NAFTA 현대화 및 북미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협상을 추진
- 2018.9.30. 미·멕·캐 3국은 자동차원산지 규정 강화 등 지역통합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노동 등 새로운 분야를 도입하며 농업분야 자유무역 및 무역구제 분쟁해결 등을 규정한 USMCA에 합의

○ 한편, 미국에 편중된 무역의존도(대미 수출 80%)를 탈피하기 위해 브라질 등 남미국가와 FTA 추진, EU와 FTA 개정, CPTPP(TPP-11) 타결 및 PA 확대 등을 통한 아태 지역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관계 다변화 모색

라. 로페스 오브라도르 신정부

○ 2018년 12월 출범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신정부는 5천만 빈곤층 및 저성장·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 확대 및 소득 재분배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석유산업 등 핵심산업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추진

- 신정부 임기중 최저 임금 2배로 인상 등 소득수준을 올려 더 많은 중산층을 육성하고 내수시장 활성화 도모. 교육훈련과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투입 빈민층 감축 추진
- 정제유 등 에너지 자급을 위해 신규 정유소 건설, 기존 정유소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추가 광구계약 중단 등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

ㅇ 그러나, 신정부는 USMCA 타결·비준, 투자유치를 위한 법치주의 강조 등 개방경제 정책을 지속하고, 공공부채 증가 억제,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저인플레 목표 설정 등 엄격한 재정금융정책 채택을 통해 시장 주의적 정책기조를 유지

- 진보좌파 성향 대통령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계와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정책 제시

ㅇ 한편, 멕시코시티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국민의견조사를 통해 취소(2018.10.29.)하였고, 반부패 공약의 일환으로 석유광구 입찰계약도 불법 발견시 선별적으로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바, 신정부의 기존 계약 취소 가능성과 관련 시장과 경제계의 우려가 있음.

3. FTA 추진동향

○ 멕시코는 무역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해 ’90년대 초부터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에서 정부의 FTA 정책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자, 2003년 11월 FTA 일시 중단 선언

○ 그러나, 2004년부터 FTA를 재추진, 일본, 볼리비아, 페루, 중미 5개국, 파나마, 태평양동맹과 FTA를 체결·발효

○ 현재는 EU와의 FTA 현대화 협상 원칙적 합의(2018.4월), 브라질과의 경제보완협정 추진, 아태지역과 협력 확대를 위한 CPTPP 타결(2018. 3월) 및 PA 확대 등을 통해 경제통상관계 다변화 적극 추진중

- 현재 13개 협정을 통해 51개국과 FTA를 체결함.

< 멕시코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 총 51개국, 13개 >

단계	명칭	서명	발효
기체결	멕시코-칠레 FTA	1998.4월	1999.8월
	NAFTA (멕시코-미국-캐나다)	1992.12월	1994.1월
	G3 FTA (멕시코-베네수엘라-콜롬비아)	1994.3월	1995.1월
	멕시코-코스타리카 FTA	1994.4월	1995.1월
	멕시코-콜롬비아 FTA	1994.6월	1995.1월
	멕시코-니카라과 FTA	1997.12월	1998.7월
	멕시코-EU FTA	1997.12월	2000.10월
	멕시코-이스라엘 FTA	2000.4월	2000.7월
	멕시코-Northern Triangle FTA(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2000.6월	2001.3월
	멕시코-EFTA FTA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2000.11월	2001.7월
	멕시코-우루과이 FTA	2003.11월	2004.7월
	멕시코-일본 EPA	2004.9월	2005.4월
	멕시코-볼리비아 FTA	2010.6월	2010.6월
	멕시코-페루 FTA	2011.4월	2012.2월
	멕시코-중미 5개국 FTA(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2011.11월	2012.11월
	멕시코-파나마 FTA	2014.4월	2015.7월
	태평양동맹(PA) 상품의정서(CP)	2013.5월	2016.5월
타결	CPTPP	2018.3월	2018.12월
	멕시코-EU FTA 개정	2018.4월 (원칙적 합의)	(2020)
	USMCA	2018.11월	(2020)
협상중	멕시코-한국 FTA	1차 예비협의(2017.2월)	
	태평양동맹(PA)-한국 FTA (PA: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TOR 협상(2019.9월)	
	멕시코-브라질 FTA	1차 협상(2018.4월)	

4. 최근 주요 경제지표

가. 경제성장

구 분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제성장률 (실질)	%	2.3	2.6	2.3	2.1	2.0
GDP(명목)	US$억	13,146	11,706	10,778	11,580	12,238
1인당 GDP(PPP)	US$	18,046	18,285	18,782	19,432	19,888

〈출처 : IMF, 멕시코 중앙은행, EIU 〉

○ 2009년에 미국의 경제위기로 최악을 기록한 후 2010-2012년간 미국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멕시코 역시 3-5%의 동반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3년 유로존 위기, 미국 경제 침체, 멕시코 신정부 출범 등으로 2013년에는 1.6%라는 상당히 낮은 성장률을 시현

○ 2015년부터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한 정부세수 감소,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 돌입, 미달러화 대비 페소화의 지속적인 가치하락, 미연준의 이자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건실한 거시경제지표를 유지하여 GDP 성장률은 2.6%를 기록

○ 2016년 들어 중국증시 폭락, 중동 불안정, 국제유가 지속적 하락 등 불안정 요소 확산 및 2017년 1월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NAFTA 재협상 등 멕시코 대외 경제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2017년 성장률은 2.1%로 소폭 하락

○ 2018년 멕시코 대선(7.1.), NAFTA 재협상(9.30. 타결) 등이 불확실성을 높였으나, 미국의 경기 회복, 지진(2017.9월) 피해 재건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 전년과 비슷한 2.0% 성장 기록

ㅇ 2019년에는 USMCA 타결에 따른 수출·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금년초 2.1% 성장을 예상했으나, △미국과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미중 통상 분쟁 및 미국의 보호주의, △USMCA 연내 비준의 불확실성,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멕 중앙은행은 현재 ('19.9월) 2019년 성장률 전망을 0.5%로 대폭 하향 조정

- 미 경기 둔화 등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어 2020년에도 낮은 성장률(1.2%)이 예상되나, 2021-23 기간중 세계경기 회복시 성장률은 2.5%로 회복 전망

나.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INPC)

구 분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물가상승률 (연말기준)	%	4.08	2.13	3.3	5.9	4.9

〈출처 : 멕시코 중앙은행〉

ㅇ 2015년도 미달러화 대비 페소화 환율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물가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1차 산품의 국내조달, 개혁조치에 따른 전기, 통신, 연료비용 하락 등으로 인플레율은 사상 최저치인 2% 초반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3%선에서 유지

ㅇ 2017.1월 가솔린 가격 자유화(인상), 페소화 약세 및 농산품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2017년말 인플레율은 5.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는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 금융불안, 신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신공항 취소 등)에 따른 환율상승과 국제유가 인상으로 4.9% 인플레 기록

- 현재 명목임금 상승이 억제되고 있고 유휴시설도 충분하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은 완화될 것인바, 2019-23년 기간중 평균 인플레율은 3.6%로 예상

다. 경상수지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교역 규모	수출	US$	398,273	381,198	373,930	409,494	450,684
	수입		400,440	395,573	387,064	420,369	464,302
경상 수지			-26,453	-28,848	-22,973	-19,451	-20,963

〈출처 : 멕시코 중앙은행, EIU〉

○ 수출의 약 80%를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특성상, △ 향후 미국의 경제 상황 △ 미국시장 등에서의 중국의 임금상승 및 운송비 상승에 따른 멕시코의 대중국 비교 우위 △ 멕시코의 수출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페소화 환율 변동 △ NAFTA 협정의 지속 등이 멕시코 수출을 결정하는 요인임.

- 2018년 현재 미국 경기가 호황이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페소화 가치 및 '18.9.30. USMCA 타결은 멕시코 수출에 긍정적인 여건

○ 또한, 멕시코 정부는 EU와 FTA 개정 합의, 브라질과 FTA 추진, CPTPP(TPP-11) 타결 및 태평양동맹 확대를 통한 아태 지역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관계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대외무역 규모는 꾸준히 확대될 전망임.

○ 2018년 경상수지는 GDP의 1.8%(210억불) 적자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2019년에도 미중 통상갈등에 따른 대미 수출 증가로 GDP의 1.7% 적자로 감소가 예상되나, 미국의 경기 후퇴가 예상되는 2020년

에는 GDP의 1.9% 적자를 기록한 후 2021-23년 기간중 평균 1.3% 적자로 개선될 전망임.

- USMCA에 따른 제조업 투자 증가 및 통신·에너지 시장 개방에 따른 투자 증가가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할 것으로 보임.

라.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외국인투자	US$	28,538	34,642	28,964	29,695	33,545

〈출처 : 멕시코 경제부〉

○ 2013년의 경우 전년대비 2.7배 증가한 475억불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세계적인 멕시코 주류회사인 Modelo사의 매도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 요인이었으며, 이후 외국인 투자 규모가 2013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세 시현

- 동 성장의 배경에는 멕시코가 자동차 생산을 세계적인 생산기지화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확대 및 2012년 페냐 니에토 정부 출범 이후 추진 중인 에너지, 통신분야 개혁 조치 등에 따라 외국기업의 진출이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기인

○ 멕시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335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 국가별로는 미국이 123억 달러로 1위, 캐나다가 41.1억 달러로 2위, 스페인이 39.5억 달러로 3위이고, 한국은 6.3억 달러로 9위
- 산업별로는 제조업(42.8%), 무역(12.9%), 금융서비스(9.9%), 광업(5.9%), 전력발전(5.5%), 대중매체(5.4%), 교통(4.2%), 기타(13.3%) 순으로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마. 환 율

구 분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환율(연말)	페소/US$	14.74	17.24	18.66	18.26	19.68

〈출처 : 멕시코 중앙은행, EIU〉

ㅇ 멕시코 페소화는 2014년 중반까지 전체적으로 미 달러 대비 13페소 전후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4년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여 왔는바, 이는 세계경제의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특히 멕시코 세수의 1/3을 차지해왔던 유가 하락 및 미연준의 이자율 인상에 따른 페소화 가치 하락 예상 등에 기인

- 페소화 가치 하락으로 멕시코는 수출업계 및 국내 관광업계 등에서 혜택을 보았으나, 동시에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계의 부담도 증가

ㅇ 2016.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 NAFTA 재협상의 불확실성 △ 미연준의 금리 인상 △ 미국의 법인세 인하(35%→ 21%), △ 신흥국 금융위기 등이 페소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대외적 요인으로 작용

- 한편, 대내적 요인으로 △ 멕시코 대선의 불확실성 △ 진보성향 후보 당선에 따른 정책 변경(기존 사업 취소) 가능성 △ 재정적자 증가 가능성 등이 페소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ㅇ 2019.10월 현재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 1미불 당 19페소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바, USMCA 타결(2018.9.30.)은 페소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멕시코시티 신공항 건설 취소(2018.10.29.)는 페소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신흥국 금융 불안, 미 대선까지 대미 관계의 불확실성, 신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미중 통상갈등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멕시코 페소화의 변동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페소가치 하락(환율 상승)이 예상됨.

5. 주요 산업별 동향 및 전망

ㅇ 2019년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8%를 기록하는 등 성장률이 저하, 특히 광업(△7.8%), 건설(△6.9%), 도매업(△4.0%) 등이 부진

< 산업별 성장률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전체		3.2	1.8	1.5	1.5	1.2	2.6	2.5	1.7	1.2	-0.8
1. 농림어업		4.3	2.4	2.1	4.2	3.1	1.5	2.2	3.0	5.7	1.4
2. 산업	총계	0.6	-1.5	-0.5	-1.0	-0.9	1.3	1.1	-0.9	-0.6	-3.0
	광업	-11.2	-8.1	-10.7	-8.8	-5.6	-5.9	-2.8	-7.3	-7.6	-7.8
	전력, 가스, 수도	0.8	-0.4	-0.4	-0.6	0.4	2.1	3.9	1.4	0.2	0.7
	건설	1.9	-3.5	-1.1	-1.2	1.7	2.3	0.6	-2.2	-0.7	-6.9
	제조업	4.8	1.7	3.3	1.7	-0.4	3.2	2.3	1.5	1.6	-0.2
3. 서비스업	총계	4.2	3.1	2.3	2.3	2.0	3.6	1.8	2.7	1.8	0.0
	도매업	2.7	0.1	4.0	4.9	2.6	3.5	1.8	1.8	0.5	-4.0
	소매업	6.7	5.7	0.1	2.0	3.0	3.5	5.5	3.1	2.9	2.1
	교통, 우편, 물류	4.0	3.7	2.6	2.7	3.1	3.7	3.3	2.2	1.1	0.5
	방송통신	7.7	6.9	6.2	3.9	3.0	7.7	4.4	8.5	0.1	-5.0
	금융, 보험	8.7	9.4	8.0	5.4	3.0	4.4	8.4	9.0	6.3	2.1
	부동산중개	3.9	2.0	1.4	0.7	1.1	1.9	2.3	2.1	1.7	1.0
	전문서비스 (과학,기술)	7.9	2.9	-5.6	-5.8	-0.8	11.3	1.9	4.1	5.6	-2.7
	기업경영	1.8	4.5	-0.5	-1.6	-1.8	-0.2	3.0	-1.1	-3.0	-5.0
	폐기물처리	4.5	3.2	8.6	6.2	4.2	7.3	5.5	3.5	7.7	5.8
	교육	3.0	-1.0	-2.3	1.2	-1.0	1.2	0.1	0.4	1.4	-1.7
	공공보건	2.2	3.3	2.5	1.9	2.2	2.3	3.2	2.0	1.2	1.2
	문화,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2.3	4.6	2.4	3.2	-0.4	-1.1	1.8	0.2	-2.4	0.3
	숙박업, 요식업	-0.1	7.4	5.5	4.6	3.1	-	0.6	0.3	-1.3	2.1
	정부활동 제외 기타서비스	2.4	-0.3	0.8	1.3	-1.6	-0.4	-1.4	-1.1	-0.1	3.6
	정부활동	0.9	0.3	-0.3	-0.4	2.7	4.4	0.4	-0.7	-3.1	-3.8

〈출처 : 멕시코 통계청〉

6. 무역 현황

가. 부문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 무역수지는 2018년 136억 달러 적자, 2019년 7월 현재 20억 달러 흑자 기록 중

○ 원유 수출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17,940백만 달러) 대비 다소 하락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 7월 누계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수출	409,432	450,685	266,574	4.2	100
1. 원유부문	23,725	30,601	16,121	-10.1	6.0
2. 비원유부문	385,707	420,083	250,453	5.2	94.0
- 농축산물	16,000	16,508	11,081	6.9	4.4
- 제조업 (자동차)	364,280	397,344	235,800	5.4	94.1
전체수입	420,395	464,302	264,546	0.5	100
- 소비재	57,338	63,118	34,411	2.2	13
- 중간재	322,039	355,297	206,200	2.0	78
- 자본재	41,017	45,887	23,934	-7.5	9
무역수지	-10,963	-13,617	2,029	-	-
원유제외 무역수지	7,323	9,542	14,460	-	-

※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출처 : 멕시코 통계청〉

나. 국가별 및 품목별 수출 현황

○ 멕시코의 수출에서 대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수준으로, 높은 대미 의존도 지속

○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비중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

- 전자기기는 주로 미국에 인접한 마킬라도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 주를 이루며, 자동차의 경우, 닛산,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등의 자동차 및 관련 부품들이 주 수출 품목

○ 멕시코의 대 한국 수출은 전체 10위권이며(2018년 7위), 주요 수출품은 광물성 연료, 광물, 자동차 부품 등

< 멕시코의 주요 수출국 및 비중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7년		2018년		2019.7월 누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326,869	79.8	358,285	79.4	213,927	80.3
2	캐나다	11,360	2.8	14,080	3.1	8,221	3.1
3	독일	6,977	1.7	7,072	1.6	4,057	1.5
4	중국	6,713	1.6	7,429	1.6	3,809	1.4
5	스페인	4,240	1.0	5,304	1.2	2,959	1.1
6	한국	3,429	0.8	4,145	0.9	2,879	1.1
7	브라질	3,681	0.9	4,408	1.0	2,504	0.9
8	일본	4,038	1.0	3,866	0.9	2,438	0.9
9	콜롬비아	3,164	0.8	3,544	0.8	2,047	0.8
10	영국	2,275	0.6	2,213	0.5	1,592	0.6

※ 주 : 순위는 2019년 기준임

〈출처 : 멕시코 경제부〉

< 멕시코의 10대 수출 품목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7년		2018년		2019.7월 누계	
	HS 코드	설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87	자동차/부품	101,740	25.34	115,510	26.18	69,993	26.26
2	84	기계류	65,890	16.41	75,387	17.08	46,260	17.35
3	85	전자기기	81,642	20.33	81,925	18.56	44,744	16.78
4	27	광물성원료	22,710	5.55	29,718	6.59	15,614	5.86
5	90	광학기기	17,475	4.35	19,046	4.32	11,465	4.30
6	94	가구류	10,676	2.66	10,598	2.40	5,832	2.19
7	39	플라스틱	8,978	2.24	9,545	2.16	5,496	2.06
8	7	채소류	6,336	1.94	6,865	1.99	4,940	1.82
9	8	과실견과류	6,456	1.61	6,491	1.47	4,588	1.72
10	22	음료	5,663	1.41	6,730	1.53	4,533	1.70

〈출처 : 코트라멕시코무역관, Global Trade Atlas, 멕시코 통계청(INEGI)〉

다. 국가별 및 품목별 수입 현황

ㅇ 멕시코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46% 내외를 유지

ㅇ 주요 수입 품목은 현지에서 임가공 및 조립 생산에 필요한 전자기기부품, 기계류, 자동차 및 부품 등

- 멕시코는 원유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유기술 부족으로 인해 정제 석유(광물성 연료)의 수입 비중이 높은 편

ㅇ 멕시코의 대한국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5위권에 꾸준히 자리하고 있으며(2018년 5위), 2019년 7월 현재 4위

< 멕시코의 주요 수입국 및 비중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7년		2018년		2019.7월 누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194,555	46.3	215,828	46.5	121,062	45.8
2	중국	74,750	17.8	83,511	18.0	47,084	17.8
3	일본	18,186	4.3	18,195	3.9	10,733	4.1
4	한국	15,763	3.7	16,727	3.6	10,468	4.0
5	독일	16,422	3.9	17,762	3.8	10,102	3.8

※ 주 : 순위는 2019년 기준임

〈출처 : 멕시코 경제부〉

< 멕시코의 주요 수입품목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7년		2018년		2019.7월 누계	
	HS 코드	설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85	전자기기	85,865	20.43	94,898	20.44	54,446	20.58
2	84	기계류	71,052	16.9	77,461	16.68	44,272	16.74
3	87	자동차/부품	41,642	9.91	43,056	9.27	24,838	9.39
4	27	광물성연료	35,531	8.45	46,331	9.98	24,802	9.38
5	39	플라스틱	23,163	5.51	25,295	5.45	14,380	5.44
6	90	광학기기	15,132	3.6	15,255	3.29	9,010	3.41

〈출처: 코트라멕시코무역관, Global Trade Atlas, 멕시코 통계청(INEGI)〉

7. 외국인투자 현황

○ 2018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335억달러, 2019년 6월 누계 유치액은 총 181억 달러

- 국가별로는 미국과 캐나다가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약 53.3%를 차지

※ 한국은 '16년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최고치를 기록, '18년 회복세, '19년 2분기 및 누계 기준('99~'19.2Q)으로 13위

○ 2000년 이후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방송·통신, 숙박·요식업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약 50%

- 특히, 멕시코는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숙박·요식업 분야 투자가 두드러짐

< 멕시코 외국인 직접투자 국가별 유입규모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6월 누계	
						금액	비중
1	미국	19,123.3	11,235.4	15,197.5	12,287.8	6,864.9	37.92
2	캐나다	1,086.0	2,274.8	2,787.8	4,114.9	2,782.7	15.37
3	스페인	4,044.0	3,568.0	3,333.6	3,953.4	2,009.2	11.10
4	독일	1,331.3	2,725.3	2,648.8	2,755.9	1,180.4	6.52
5	벨기에	826.9	1,111.8	1,029.4	11.6	733.9	4.05
6	네덜란드	315.3	264.8	-83.7	595.9	649.5	3.59
7	스위스	388.4	586.2	314.9	559.8	621.8	3.43
8	프랑스	961.3	446.3	516.8	511.3	563.8	3.11
9	이탈리아	661.6	805.2	1,864.3	1,630.1	518.4	2.86
10	호주	685.9	97.1	1,374.8	598.2	455.2	2.51
11	일본	2,199.5	1,940.4	2,427.9	2,216.4	426.1	2.35

12	영국	521.5	416.6	403.9	680.4	375.1	2.07
13	한국	933.5	1,004.3	234.0	631.9	250.0	1.38
-	총계	35891.4	31130.9	33683.1	33544.9	18102.4	100.0

〈출처 : 멕시코 경제부(도착액 기준)〉

<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7년	2018년	2019.6월 누계	1999-2019
농림어업	137.8	48.1	78.6	1757.9
광업	1496.1	1857.9	1073.1	30920.7
전력, 가스, 수도	2156.2	5093.2	1004.6	17772.8
건설	3106.8	1641.1	535.9	22033.1
제조업	15338.5	16210.1	7743.3	273197.0
상업	2925.7	2722.1	2329.7	42096.9
교통	3435.9	1224.3	754.	21565.9
방송통신	617.7	1134.1	981.8	24323.1
금융서비스	2452.0	2020.2	1799.4	77291.5
부동산/임대	542.8	269.7	700.9	16205.8
전문서비스	259.0	161.4	419.0	6746.6
비즈니스 지원	261.5	121.9	100.2	6366.8
교육 서비스	30.2	55.9	1.3	445.9
보건/위생	10.4	2.1	19.1	227.8
오락	155.8	13.5	-0.3	1147.7
숙박업	824.8	936.7	513.0	19202.8
기타	21.8	32.7	48.8	805.5
Total	33,683.1	33,544.9	18,102.4	562,108.0

〈출처 : 멕시코 경제부(도착액기준)〉

8. 천연자원

가. 석유 및 천연가스

○ 멕시코의 석유매장량(확인 매장량 기준)은 2018년 기준 64.6억 배럴로 세계 19위

* 중남미 주요국 순위 : 1위: 베네수엘라, 15위: 브라질, 18위: 에콰도르

< 멕시코 석유 매장량 >

(단위 : 백만 배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확인(proved) 매장량	7,640.71	7,037.00	6,464.17
확인 및 추정(probable) 매장량	13,272.66	12,849.56	12,280.69
확인, 추정 및 가능(possible) 매장량	19,454.66	19,970.24	19,417.80

〈자료원: PEMEX(멕시코석유공사)〉

○ 멕시코의 천연가스 매장량(확인 매장량 기준)은 2018년 100,224 억ft^3으로 세계 39위

< 멕시코 천연가스 매장량 >

(단위 : 억ft^3)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확인(proved) 매장량	126,514	104,020	100,224
확인 및 추정(probable) 매장량	93,749	88,988	93,555
확인, 추정 및 가능(possible) 매장량	105,416	96,495	106,425

〈자료원: CHN(멕시코 탄화수소 국가위원회)〉

ㅇ 주요 유전 분포지역

- 북동해양지역(Campeche, Yucatan, Quintana Roo주 해안) : Cantarell과 Ku-Maloob-Zaap 유전
- 남서해양지역(Veracruz, Tabasco, Campeche 인접해역) : Abkatan-Pol-Chuc과 Litoral de Tabasco 유전
- 북부내륙지역 : Burgos, Poza Rica-Altamira, Veracruz, Aceite Terciario del Golf 유전센터
- 남부내륙지역 : Bellota-Jujo, Cinco Presidentes, Macuspana, Muspac, Samaria-Luna 유전센터

< 유전분포 지역 >



ㅇ 멕시코만 Cantarell 유전 등 전반적인 유전 쇠퇴로, 석유, 천연가스, 휘발유 등의 생산이 지속 감소 추세임 (원유는 수출국이나,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순수입국, 천연가스 순수입국)

< 멕시코 원유/천연가스/휘발유 생산량 >

연도	원유(천배럴/일)	가솔린(천배럴/일)	천연가스(백만ft^3/일)
2009	2,601	471.5	7,031
2010	2,577	424.2	7,020
2011	2,553	400.3	6,594
2012	2,548	418.1	6,385
2013	2,522	437.3	6,370
2014	2,429	421.6	6,532
2015	2,267	381.4	6,401
2016	2,154	325.3	5,792
2017	1,948	257.0	5,068
2018	1,813	207.1	4,847

〈자료원: PEMEX(멕시코석유공사)〉

ㅇ 멕시코는 생산 원유 일부를 수출하는 가운데, 정유시설 노후화 등으로 2014년 이후 휘발유 수입이 크게 증가

< 멕시코 원유/천연가스/휘발유 수출입 >

연도	원유(천배럴/일)		가솔린(천배럴/일)		천연가스(백만ft^3/일)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9	1,222	0	71.4	75.9	67	422
2010	1,361	0	67.7	93.4	19	536
2011	1,338	0	75.2	124.7	1	791
2012	1,256	0	69.4	131.4	1	1,089
2013	1,189	0	66.8	128.1	3	1,290
2014	1,142	0	66.0	370.5	4.1	1,357
2015	1,172	0	62.9	427.1	2.7	1,415

2016	1,194	0	52.7	505.1	2.2	1,933
2017	1,174	0	45.0	570.6	1.7	1,766
2018	1,184	689	37.7	594.8	1.4	1,316

〈자료원: PEMEX(멕시코석유공사)〉

○ 석유산업은 1934년 헌법 개정에 의해 국유화를 단행, 1938년 국영석유회사(PEMEX)를 창설

○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생산력 저하에 따라 과거 페냐 니에토 정부는 2013년 에너지 개혁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석유자원의 탐사부터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정부는 페냐 니에토 전 정부의 에너지 개혁(민간투자 허용 등)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석유생산 감소 및 가솔린 가격 상승 요인이었다고 평가

- 다만, 멕시코 외국인 투자 및 지난 정부에서 체결된 계약(석유광구 개발 등)을 보장
- 석유 정유공장 신설(Tabasco) 및 기존 정유공장 현대화 추진으로 휘발유 등 연료 수입비용 절감,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세일가스 개발 중단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

나. 광물자원

○ 스페인 식민지 시절, 유럽 은사용량의 70% 이상을 공급한 바 있으며, 2018년 광물산업(mining-metallurgical sector) 생산(약 244.6억불)이 GDP의 2.4% 차지

< 멕시코 주요광물 생산 현황(단위: 톤) >

광종	2017년	2018년	세계순위
은(ton)	5,815	7,243	1
형석(Fluorita) (ton)	741,678	1,959,089	2
납	243,023	230,869	5
몰리브덴	13,985	20,265	5
아연	671,444	662,354	6
구리	742,246	696,580	8
금	126.8	141.1	9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ㅇ 주요 광물 생산지역은 북서부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소노라주와 사카테카스주는 동, 아연 등 최대 광물 생산지임

* 주요 지역: Durango주(금, 은), Sonora주(동), Zacatecas주(은, 아연)

ㅇ 멕시코 광업법(경제부 소관)상 국내외 투자자에 대해 광업이 완전 개방되어 있으며, 2018년 광업 관련 외국인 투자는 총 45억불

9. 마킬라도라

가. 마킬라도라 기업의 기원 및 변천

ㅇ 1964년부터 미-멕시코 접경지역의 국경에서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투자하는 내외국인투자기업에 보세가공형태의 무역을 허용하는 형태로 출발(재수출을 조건으로 원자재 및 시설재 무관세 도입)

ㅇ 1973년부터 마킬라도라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마킬라도라 투자규정에 의해 투자되는 모든 기업을 의미하고 내수판매도 제한적으로 허용(내외국인 투자자 구분 안함)

나. 마킬라도라 입주 업체 및 고용

ㅇ 종전에는 마킬라도라 기업의 주력업종이 섬유, 가구, 전자부품, 완구, 신발 등 노동집약적 업종 위주였으나, 현재는 화학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통신장비, 컴퓨터 및 자동차디자인 등 품목이 다양화되었으며 자본집약적 산업 위주로 전환중

ㅇ 현재 약 5,000개의 업체에 180만명이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

VI

사회 및 문화

1. 특징
2. 인종
3. 언어
4. 언론
5. 통신
6. 교육
7. 의료
8. 관광
9. 문학
10. 미술
11. 대중음악
12. 영화
13. 스포츠
14. 축제
15. 사회간접자본



1. 특 징

가. 멕시코 문화의 이원성: 마야와 아스테카 문명의 후예

○ 아스테카 문명에서 자주 보게 되는 해골 반, 살갗 반의 얼굴 가면으로 상징되는 죽음과 삶의 공존성과 멕시코 문학, 미술에서 두드러지는 죽음에 초연한 자세 등은 멕시코 문화가 갖는 이원성을 대변

○ 민예품 가게에 즐비한 해와 달(Sol y Luna)이 함께 그려진 벽걸이 장식도 멕시코에서는 빛과 어둠, 삶과 죽음, 기쁨과 고독이 공존하는 문화적 특성

○ 미국의 '할로윈 데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역사와 인류학적 배경을 지닌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11월 1일과 2일)에는 죽음을 희화하는 멕시코 사람들의 특징을 내재

- 설탕이나 초콜릿으로 만든 해골바가지 모양의 사탕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선물하고 웃으면서 자신의 두개골 사탕을 깨물어 먹는 모습은 매우 이색적
- 또한 '죽은 자들의 날'에는 원주민의 유구한 전통에 따라 가족이 모여서 옥수수 가루로 만든 반죽과 강낭콩, 옥수수나 바나나 잎에 고기와 살사를 조금 넣어서 먹는 '타말'을 만들어 '오프렌다(ofrenda)'라고 부르는 제사상에 공양
- 제사상의 위와 바닥은 진노랑색의 '셈파수칠'이라는 죽은 자를 이승으로 안내하는 꽃떨기와 꽃잎으로 장식
- 가족 단위의 제사상 말고도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동네 공원이나 유명한 광장에 멋진 제사상을 만들어 전시

○ 이렇듯 멕시코에서 죽음은 금기의 단어가 아니라 삶과 더불어 함께 하는 존재의 또 다른 면이며, 죽음을 희롱하면서 삶을 달관하고자 하는 멕시코 문화의 이중적인 면을 시현

나. 빈부격차

- 2010년 이후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제1위 부호로 발표된 카를로스 슬림과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원주민이 공존

-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OECD 국가 중 최장근로시간(연 2,248시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근로소득은 최하위(34.4%)를 기록

다. 혼합문화 속 계층별 양분화 경향

- 정치나 언론 및 경제계에는 주로 백인들이 진출

- 상류층은 스스로를 북미나 유럽과 동일시하는 경향

- 미국인을 그링고*라 부르는 등 미국에 대한 애증은 멕시코 전반에 산재

  * Green go → gringo : "녹색군복은 돌아가라!"라는 뜻. 미국의 멕시코 침공과 미군의 군복 색깔을 빗대어 "양키 고 홈" 정도의 뜻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인종에 관계없이 미국인을 얕잡아 볼 때 쓰는 경멸적 표현

- 멕시코시티에서 길거리 동냥을 하거나 신호대기 중 자동차 앞유리창 즉석 청소로 푼돈을 버는 사람들이 도시 빈민층을 형성하며, 사회적 신분이 출신 인종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임.

라. 국민성

- 친절하고 낙천적이나 가치관은 보수적 내지 배타적인 측면

- 대가족 위주이며 핵가족으로 살아도 사촌들과의 교분이 두터워 주말에는 친척 생일파티나, 돌잔치, 교회의식 등 많은 모임이 있어서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경향

2. 인종

- 원주민 30%, 혼혈 60%, 백인 9%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지도층은 대체로 유럽계 후손이 다수

- 프랑스, 영국, 스페인계의 이주민이 주로 할리스코주, 누에보레온주 등 멕시코 중·북부에 정착했으며, 사탕수수농장으로 인한 노예 무역의 결과로 베라크루스주, 오아하카주에는 소수지만 흑인들이 분포

- 지형적 요인으로 스페인의 정복이 늦어진 유카탄 반도 일대와 오아하카, 치아파스 지역 등에는 상대적으로 원주민 인구비율이 높은 편

3. 언어

가. 공식 언어

ㅇ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로 인구의 97%가 사용하고 있으며 원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착어 60여개가 현존

ㅇ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세계 최대 국가

나. 토착 언어

ㅇ 아메리카 대륙에는 현재까지 여러 원주민어가 쓰이고 있으며, 멕시코의 대표적인 토착어로는 아스테카 제국에서 사용하던 나우아틀(Nahuatl)어와 마야어족 중에서 유카탄 마야어 등이 있으며 각기 100만명 이상이 사용

ㅇ 멕시코 정부는 일부 원주민 지역사회에 2개 언어를 병용하는 초등교육을 장려

4. 언론

가. 주요 일간지(스페인어)

일간지 명	소유주	보도 경향	평균 발행부수
El Universal	Juan Francisco Ealy Ortíz	중도 우파	133,400
Reforma	Alejandro Raúl Junco de la Vega Elizondo	중도	138,875
Excelsior	Olegario Vázquez Raña	보수	120,540
La Jornada	Carmen Lira Saade	진보	105,000
Milenio	Francisco A. González	중도 우파	99,827
El Sol de México (OEM)	Paquita Ramos de Vázquez	보수	69,907 *지방지 23개 보유
El Heraldo de México	Franco Juan Carreño Osorio	중도	50,000 *지방지 11개 보유
El Financiero	Manuel Arroyo Rodríguez	보수	91,890
El Economista	Jorge Nacer Gobera	보수	37,336

나. 주요 주간지(스페인어)

○ Proceso, Siempre, Nexos, Impacto 21, EstiloDF 등

다. TV 방송

○ Canal 11, Canal 22 등 2개 공영채널과 Televisa, TV-Azteca, Imagen TV, Milenio TV가 운영하는 10여개 민영채널 이외에 외국 TV방송, 유선 중계 방송망 등 전국에 1,461개의 TV 방송국 운영(Televisa는

멕시코에서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방송사이자 세계 최대의 스페인어 콘텐츠 제작사)

- Milenio지를 소유한 Grupo Multimedios는 멕시코, 스페인, 미국에 방송되는 스페인어 멀티미디어그룹으로 TV, 라디오 등도 함께 운영, Excelsior지를 소유한 Grupo Imagen과 El Helaldo 등도 최근 방송 영역에 진출

- 멕시코는 브라질과 함께 Telenovela(TV 드라마에 해당)가 강세

- 라디오 방송국 수는 2019년 현재 약 1,930여개, 18년 6월부터는 최대 라디오방송사인 라디오센트로에서 K-Hour라는 한류전문 방송을 방송 시작

한국드라마 방영

- 수도권 지역방송인 TV Mexiquense(TV 메히껜세, Canal 34에서 방영)에서는 2002년부터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기 시작

- 2002년 “이브의 모든 것”을 시작으로 “별은 내 가슴에”, “겨울연가”, “내 이름은 김삼순”, “대장금” 등을 무상 방영함으로써 멕시코 한류열풍의 기초를 마련

- 한류드라마로 인해 초창기 안재욱, 장동건 등의 한류스타 팬클럽으로 시작한 한류문화는 이후 비, 동방신기, 2PM, SS501, 빅뱅 등 한국가수 팬클럽으로까지 확산되어 80여개 클럽, 16만여명의 한류팬이 적극 활동(2018년 기준)

- 2017년에는 스페인어권 최대 방송미디어 그룹 소유의 텔레비사 후안 오소리오 책임프로듀서가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포맷을 구입하여

리메이크한 <Mi marido tiene familia>가 시청률 20%를 넘기면서 흥행에 성공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인기에 힘입어 2018년 동 드라마 시즌 2가 방영

ㅇ 2012년 김준수 콘서트를 시작으로 슈퍼주니어, 엠블랙, 유키스, 샤이니, 씨엔블루 등 다수의 K-POP 그룹의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

- 2017년에는 중남미 최초로 세계최대 한류컨벤션행사인 K-CON in Mexico가 성황리에 개최, 남성아이돌 중심의 공연시장에서 2019년에는 선미, 트와이스 등의 여성그룹의 진출로 현지 K-POP 공연시장의 다양화 진행 중

ㅇ 한류 팬클럽들은 현재 한국문화 전반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한글은 물론 사물놀이, 부채춤 등 한국 전통문화의 습득과 전파에 노력

ㅇ 현재 주멕시코 문화원 소속 현지인 사물놀이팀 <새울림>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멕 문화교류 주요 행사에 참여하여 한국 전통음악을 멕시코에 홍보

5. 통신

가. 통신서비스 시장

○ 중남미 최대 규모로서 1990년 시장 개방 이후 다양한 기업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존의 국영기업 텔멕스(TELMEX)가 여전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텔멕스는 멕시코의 세계적 부호인 까를로스 슬림의 소유)

○ 텔멕스(TELMEX)는 멕시코 유선전화시장의 약 79.6퍼센트, 아메리카 모빌(Telcel)은 무선전화시장의 약 69퍼센트를 점유

○ 텔멕스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미국 등 미주 지역까지 운영을 확대

○ 2013년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방송·통신시장 독과점과 시장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 개혁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Izzi(Cablevision, Cablemas, Telecable 등 소유), Axtel, Totalplay 등 다양한 기업이 전화·인터넷 서비스 제공

○ 휴대전화 서비스는 Telcel, AT&T(Iusacell), Movistar 등이 주요 기업이며, 동 3개 기업의 통신망 아래 운영되는 Weex, Unefon, Virgin Mobile 등의 중소 규모 기업이 활동중

나. 국내 인터넷 사용자

○ 2018년 기준 멕시코 인터넷 사용자는 약 74백만 명으로, 6세이상 전체 인구의 66%를 차지

ㅇ 멕시코시티와 대도시 및 관광지에서는 어렵지 않게 인터넷 까페(Internet Café, 우리의 인터넷 PC방에 해당)에서 시간당 약 10페소로 인터넷 사용 가능. 또한 공공장소(공원, 도서관, 식당, 커피숍 등)의 WIFI 보급률도 급속히 증가

ㅇ 속도는 한국에 비해 느리며, 인터넷 까페의 컴퓨터는 대부분 저성능에 바이러스 점검도 하지 않으므로 사용시 주의 필요

6. 교육

가. 학제

ㅇ 유치원 2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6년으로 구성

ㅇ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이며 국립대학의 경우도 학비가 매우 저렴

ㅇ 사립학교의 학비는 공립학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며 일반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학교의 평판과 일치

나. 학위

ㅇ 대학과정을 마치지 않고 전문학교(2~3년)를 거치는 학생들도 많으나, 대학을 마친 사람에게는 인문계는 학사학위(Licenciado)와 직업학위(법대인 경우 변호사와 공증인)를, 이공계는 공학기사 학위(Ingeniero)와 직업학위(의대인 경우 Doctor Médico)를 부여

ㅇ 사회 진출시 학위 소지 여부가 큰 영향

ㅇ 따라서 학사 또는 석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높은 위상을 부여하며, 신문 방송 등에서 유명 인사나 정치인을 소개할 때나, 개인 명함에 본인의 이름 앞에 리센시아도(학사), 잉헤니에로(공학기사), 마에스트로(석사), 독토르(박사)를 붙여서 호칭

- 멕시코의 대학은 논문이 통과되어야 졸업할 수 있으며, 학사논문 심사 과정도 엄격

ㅇ 예전에는 학사나 석사로도 학문적인 능력을 인정받았고 석사학위의 훌륭한 교수진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점차 박사를 취득하는 경향

다. 멕시코 주요 대학

ㅇ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UNAM;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대학으로 누에바 에스파냐 식민지 시절인 1551년 설립
- 노벨상 수상자 3명 및 많은 인재를 배출한 바 있으며, 몇몇 학과는 세계 20위권 안의 높은 수준을 자랑
- 총 5개의 캠퍼스에 약 30만 명의 학생과 4만 명의 교원이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대학
- 대학과 연구소가 집중되어 작은 도시를 이루고 있으며 국가적 연구의 상당 부분을 담당

ㅇ Colegio de Mexico(COLMEX; 멕시코국립대학원대학교)

- 스페인 내전을 피해 멕시코로 망명한 지식인들이 1940년 설립
- 멕시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엘리트 양성소
- 학부 및 석·박사과정 200여명의 학생과 180여 이상의 교수진이 7개 연구소에 분산·재직하고 있는 연구중심 대학
-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에 있어 수준 높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1994년부터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동 연구센터 내에 <한국학 석사과정>을 운영
- 2006년 신입생 부족으로 인해 동 석사과정이 폐쇄되었다가 2010년 8월 석사과정이 부활하였으나 학교 내부 사정으로 동 과정 폐쇄
- 까다로운 학생 선발과 엄격한 학사 관리로 유명

ㅇ Universidad Autónoma Metropolitana(UAM: 메트로폴리탄자치대학교)

- 1976년 설립된 공립대학교로 해방철학으로 유명한 엔리케 두셀 등이 강의
- 멕시코시티 수도권 지역에 Azcapotzalco, Iztapalapa, Xochimilco, Cuajimalpa, Lerma 등 5개 캠퍼스에서 4만 8천여명 재학, 학제는 3학기제로 운영
- 2019년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에 따르면, UNAM 과 Tec de Monterrey를 제치고 멕시코 대학평가 1위 차지

ㅇ Instituto Tecnológico Autónomo de México(ITAM; 멕시코 자치기술대학)

- 1946년 Raul Bailleres를 중심으로 일군의 은행가와 상공인들이 경제계와 산업계의 변화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명문 사립대학으로서 특히 법대와 경영대가 유명
- 칼데론 전 대통령이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칼데론 정부는 각료로 동 대학 출신을 다수 등용

ㅇ Instituto Politécnico Nacional(IPN; 국립 공대)

- 멕시코혁명 직후인 1936년 Lazaro Cardenas 대통령 당시 기술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교육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이공계 분야에서 UNAM과 비견
- 멕시코 17개 주에 걸쳐 16개의 고교와 25개의 대학 캠퍼스 및 20개의 연구센터가 있으며 총 334,000명의 학생과 15,000명의 교원, 9,600명의 직원이 소속된 대규모 학교
- 특히 동 대학은 멕시코 3대 방송국에 속하는 Canal Once를 소유하고 있어 큰 영향력

ㅇ Universidad de Iberoamérica(이베로아메리카 대학)

- 멕시코 사립대학 중 1순위의 명문대학
- 높은 등록금과 그에 합당한 훌륭한 교수진으로 학생들도 부유층 자녀들이며, 유태인들이 다수 재학

ㅇ Tecnológico de Monterrey(몬떼레이 공업기술대학)

- 공과계 사립대학에 있어 가장 높은 시설과 수준을 보유하며,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으로 유명

7. 의료

가. 의료수준

○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민영진료기관과 공공기관 간의 수준차와 비용차가 크며, 공공진료기관의 경우 환자 수요를 감당할 인력, 인프라 부족으로 즉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빈번

○ 주요 대도시의 의료서비스는 양호하나 일부 지방이나 원주민 공동체의 의료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도서산간 지방 및 낙후지역에 대한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진행중

나. 의료제도

○ IMSS, ISSSTE와 같은 사회보장보험제도와 노동사회보장부 직영의 공적구제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개별 州와 연방정부가 각각 별도의 의료보험제도를 운영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취임 후 분절되어 있는 의료보험제도 일원화 공약을 발표하는 한편,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별도로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현행 방식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개편하여 2021년까지 연방정부로의 운영권한 일원화 추진 계획을 발표

- 대선 당시 '캐나다, 유럽식 보편적 무상의료 체계 구축' 공약

○ 의료보험

- IMSS(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 : 모든 노동자가 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

- ISSSTE(Instituto de Seguridad y Servicios Sociales de los Trabajadores del Estado) : 모든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
- 공적구제 제도 : 노동사회보장부 직영의 의료기관을 통하여 비보험 저소득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ㅇ 보건소

- 일반적으로 빈민층 사람들은 일회 병·의원 진료비 400~500페소를 낼 수 없어 동네의 보건소(Centro de Salud)를 이용
- 보건소에서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10살 미만의 어린이는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 서비스 이용 가능

8. 관광

ㅇ 광활한 영토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동식물 생태계, 아즈텍과 마야 문명으로 대표되는 인류학 및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유적지, 누에바 에스파냐 시대 300년간 건축된 식민지풍의 도시, 교회, 수도원 등의 문화유산이 풍부

ㅇ 멕시코는 2018년 41.4백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세계 7위)을 유치하였고,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소득이 224억 달러(전년 대비 5.2% 성장)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성장세를 보임.

ㅇ 치안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광객 유치정책 및 페소화 가치 하락 등으로 방문자 수는 꾸준히 늘어갈 것으로 예상

- 멕시코 관광부는 2022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6천만 명 유치, 세계 관광 대국 순위 4위를 목표로 관광진흥 정책 추진중

9. 문학

ㅇ 멕시코 문학은 스페인어권의 영향력 있는 문학국가들인 스페인, 아르헨티나, 쿠바와 더불어 왕성한 창작과 파급력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

ㅇ 중남미의 작가들이 자국에서 사회, 문화, 정치적인 위상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의 문학 작가들 또한 작가이면서 동시에 지식인의 첨단에 위치

ㅇ 멕시코 문학에서는 17세기 바로크 시의 절정을 여실히 보여준 시인 후아나 이네스 데 라 크루스(Juana Inés de la Cruz) 수녀가작가이자 시대를 뛰어넘는 지식인의 표상으로 꼽히고 있으며, 시인 옥타비오 파스(Octavio Paz)는 1990년 멕시코인으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

후아나 이네스 데 라 크루스 수녀

* 멕시코 문학에서 후아나 이네스 데 라 크루스 수녀가 차지하는 의미는 각별한데 이는 누에바 에스파냐 시절, 미모의 여류 시인이자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식민지 본국 스페인의 위대한 바로크 시인들보다 뛰어났기 때문

* 스페인 바로크 시(詩) 전통의 아름다운 기교와 화려함에 존재와 인생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무게가 더해진 작품세계 때문에 “열번째 뮤즈(La décima musa)”, “아메리카의 불사조(Fénix de América)”라고 불리며 칭송받았던 후아나 수녀는 오늘날에도 멕시코 작가는 물론, 중남미 작가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인물

* 문학계의 재평가와 더불어 후아나 수녀는 국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도 스페인과 맞서는 멕시코의 긍지였기에 200페소 지폐에도 후아나 수녀의 초상 사용

ㅇ 후아나 수녀에서 파스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멕시코는 시적 전통이 오래되고 강한 나라

- 이는 스페인이 식민지 누에바 에스파냐에 소설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멕시코에서는 공식적으로 시 창작만이 허용되었던 역사적 사실에 기인

ㅇ 소설 작가의 등장은 18세기 말에 가서야 이루어졌으나 멕시코의 소설 역시 20세기 라틴아메리카의 마술적 사실주의의 흐름과 조우하면서 높은 문학적 완성도 달성

- "마술적 사실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적, 역사적, 정치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고발하기 때문에 "리얼리즘" 계열에 속할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환상적인 구성, 묘사를 통해 경이롭게 표현되기 때문에 "마술적"이라 지칭
- 마술적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은 콜롬비아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ía Márquez)의 <백년동안의 고독>

ㅇ 2012년 타계한 소설가 카를로스 푸엔테스(Carlos Fuentes)는 멕시코의 대작가로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였으며 멕시코 현대문학사에서 옥타비오 파스와 함께 거론

- 그의 초기작 <아우라>는 2인칭 화법으로 써내려간 짧은 단편소설인데 괴기하면서도 환상스러운 분위기로, 1950년에서 1970년대 모든 라틴아메리카에서 붐을 이루며 등장한 문학 경향인 "붐세대 소설"에 속하는 대표작
- '붐세대 소설'과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을 유럽과 미국 출판시장에 소개하는데 큰 공로
- 대표작으로는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 <가장 투명한 지역>, <테라 노스트라(우리의 땅)> 등

ㅇ 현재 활동하는 멕시코의 유명작가로는 2014년 세르반테스 문학상을 수상한 엘레나 포니아톱스카(Elena Poniatowska)가 있으며 날카로운 사회인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포용을 호소하는 수필, 소설 등 다양한 작품 활동

10. 미술

ㅇ 20세기 초 멕시코 혁명 이후에 국가주도로 멕시코 정체성을 확립하는 프로젝트가 사회, 문화, 예술에 걸쳐 형성

- 호세 바스콘셀로스는 1925년 <우주적 인종 La raza cósmica>이라는 책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메스티소 혼혈인종은 유럽과 미국의 타락한 앵글로 색슨 인종이 갖는 문화를 대체하면 도래하는 미래의 희망찬 인종이 될 것이라고 묘사하면서 인종적 자긍심을 역설
- 이후 이 책의 파급력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혁명 이후 민족주의적 분위기와 함께 큰 영향력
- 바스콘셀로스는 특히 멕시코 국립자치대학 9대 총장이었으며 1921년에서 24년까지 교육부장관을 역임하였는데 교육부장관 재임 동안 멕시코 미술사에서 큰 획을 차지하는 벽화운동의 시작을 주도

ㅇ 당시 멕시코 혁명을 경험했지만 문맹률이 높았던 민중들에게 메스티소 혼혈인종의 긍정과 멕시코 역사에 대한 자긍심, 정체성을 불어 넣기 위한 목표로 공공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계몽운동(벽화운동)은 당시 유럽에서 공부하던 지식인 화가들을 소집해서 교육프로젝트를 부여한 것이 우수 작품 탄생의 계기

ㅇ 혁명 이후의 민족주의적이며 마르크스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벽화운동은 예술운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 문화, 정치 분야에 파급력을 보였는데 이는 벽화를 통해 멕시코의 정복과 식민, 독립과 혁명의 역사가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면서 당시 멕시코가 처했던 계급갈등, 삶의 부조리, 빈곤, 부패 등이 적나라하게 풍자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

근대 멕시코의 3대 벽화운동가

■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 1886~1957)

- ㅇ 멕시코 현대 회화의 거장이며 유럽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벽화운동에 큰 획을 남긴 화가
- ㅇ 스페인 정복자들과 미국의 자본주의자들, 멕시코 상류층들을 풍자하면서 멕시코 혼혈인종을 부드러운 선과 볼륨감 있는 터치로 온화하게 재현하였으며, 아즈텍, 마야 문명시대를 이상적으로 미화시키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공감
- ㅇ 프리다와의 결혼생활로 많은 일화를 남기며, 멕시코 및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

■ 호세 클레멘테 오로스코(José Clemente Orozco, 1883~1949)

- ㅇ 멕시코혁명 이후 민족부흥운동의 일환으로 미술가조합을 조직
- ㅇ 전 생애를 멕시코혁명과 함께 했고, 혁명과 전쟁의 영웅적 광경을 비극적 시각으로 강렬하게 묘사
- ㅇ 디에고 리베라가 멕시코혁명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면, 오로스코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에서 표현
- ㅇ 날카롭고 곧은 선으로 역사적 비극감을 높였으며, 정복의 폭력성과 혁명에서 비롯된 죽음의 비극 등을 생생하게 표현함으로써 디에고 리베라와 차별화

■ 다빗 알파로 시케이로스(David Alfaro Siqueiros, 1896~1974)

- ㅇ 멕시코혁명에 가담하여 공산주의 예술가로 활동
- ㅇ 디에고 리베라와는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 벽화운동에 전념

ㅇ 벽화의 평면성을 극복하고 움직임과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공간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새로운 벽화기술을 도입

ㅇ UNAM 대학교 총장실 건물 외벽에 있는 벽화는 진보의 대학상을 표현하고 있으며 역시 차를 타고 가면서 바라보아도 벽화의 역동성과 앞으로 향하는 진보의 느낌이 전달

- 시케이로스의 벽화는 관람자가 움직이면서 볼 때마다 그 느낌이 변화

벽화 운동 이외의 현대 멕시코 화가

■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

ㅇ 디에고 리베라의 부인으로 멕시코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ㅇ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인해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

ㅇ 사고로 인해 그림에 눈을 떴으며 육체의 고통과 모성의 상실, 고독에 관한 성찰을 통해 초현실주의적 색채의 자화상을 많이 남김.

ㅇ 대표작으로 <두 명의 프리다>가 있으며 사회주의 운동에도 관심

■ 루피노 타마요(Rufino Tamayo, 1899~1991)

ㅇ 디에고 리베라나 다빗 알파로 시케이로스와 같은 벽화운동가들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비판

ㅇ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큐비즘적 구성과 원근법적 선의 사용을 발전

ㅇ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건물은 루피노 타마요의 벽화로 장식

- 독특한 신체 구성과 아름다운 색감 그리고 에로틱한 주제로 특징

11. 대중음악

■ 마리아치(Mariachi)

- ㅇ <마리아치>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악단으로서, 현악기와 관악기로 구성된 소편성 악단

- ㅇ 18세기에 멕시코 서부에 위치한 할리스코 지방에서 유래되었으며 19세기 말 포르피리오 디아스 정권 시절에 오늘날 알려진 마리아치 의상이 발전

- ㅇ 마리아치들이 입는 커다란 챙이 난 모자와 금색 또는 은색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자켓과 바지는 19세기 아시엔다(대농장) 주인의 복장에서 유래

- ㅇ 마리아치는 주로 커다란 행사나 야외파티, 소규모 가족행사에서 흥을 돋우거나 사랑의 세레나데나 생일축하 노래 등을 연주

■ POP

- ㅇ 멕시코의 음악시장 규모는 2018년 세계 15위 규모인 4억 5천만 달러 규모로 브라질에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두 번째 시장

- ㅇ 특히, 공연시장은 라틴 아메리카 최대 규모이며, 티켓 판매 순위를 기준으로 세계 7위(Arena Ciudad de Mexico)와 8위(Arena Monterrey)의 공연장을 보유

- ㅇ 전통음악과 접목한 다양한 유형의 자체 음악의 저변도 넓으나, 최근에는 서구음악, K-POP 등이 차트의 상위를 차지하고 스트리밍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등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

12. 영화

- 멕시코 최초의 영화는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일상을 기록한 무성기록영화 <디아스 장군, 차풀테펙 숲을 말 타며 거닐다>

- 기록영화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픽션에 바탕한 무성영화는 <회색 자동차>였으며 첫 멕시코 발성영화는 1931년 창녀를 소재로 한 멜로드라마인 안토니오 모레노 감독의 <성녀>

- 제1차 세계대전이 가져다준 경제적 호황과 더불어 전쟁으로 헐리우드 영화가 주춤할 당시 멕시코 영화계는 호기를 잡으며 크게 비약하였고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에 위대한 멕시코 감독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영화의 예술성을 한 차원 올리는데 기여

- 가장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관람하고 여전히 좋아하는 1947년 작 영화인 <가난한 우리들 Nosotros los pobres>의 감독 이스마엘 로드리게스는 당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 페드로 인판테(1917~1957)와 함께 여러 편의 히트작을 기록

- 110년이 넘는 멕시코 영화사에서 1940년대는 황금기라고 불리면서 멕시코 영화산업을 이끌었고, TV의 보급 등으로 멕시코 영화는 50년대 말부터 쇠락하기 시작

- 60~70년대의 암흑기 동안에 좌파적 시선의 신영화운동에서 몇편의 수작을 내놓았고, 68년 틀라텔롤코 학살사건 이후 70년대에 멕시코 독립영화에 대한 정부 지원과 표현의 자유 보장 정책 실시

- 80년대에도 멕시코인들은 영화관을 찾지 않았고 멕시코 영화는 비디오로 주로 소비되다가 90년대 초반 영화관객수가 증가하면서 멕시코 영화는 관객들과 다시 조우

ㅇ 1992년 <달콤쌉싸름한 초콜릿 Como agua para chocolate>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멕시코 영화의 르네상스 도래

- 2000년 <아모레스 페로스 Amores perros>와 2001년 <이투마마 Y tu mamá también> 등의 영화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흥행에 성공하면서 역량 있는 젊은 감독들이 대거 배출
- 멕시코 영화계의 "세 친구"라고 불리는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아모레스 페로스 감독), 기예르모 델토로(헬보이, 바벨, 판의 미로 감독)와 알폰소 쿠아론(이투마마, 그래비티)은 멕시코 영화계의 르네상스를 이끈 대표적인 감독들로 현재 헐리우드에 진출하여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

ㅇ 2000년대 이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자국영화 진흥정책으로 영화 제작 편수가 증가하였으며, 2013년 최초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자국영화 <환불불가 No se aceptan devoluciones>가 탄생. 동 영화는 헐리우드에서 선개봉 후 멕시코 현지에서 홍보하는 전략으로 대대적인 흥행몰이를 이룩하여 마케팅의 성공신화로 선례를 남김.

- 2018년 기준 연간 극장을 찾는 관객수는 3.2억명으로 영화시장규모는 세계 10위권 수준 유지, 상영관의 디지털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2018년 현재 전체 스크린의 99% 정도가 디지털 상영시설 구비
- 멕시코에서 인기 있는 한국 영화감독은 김기덕, 박찬욱, 홍상수 등 작가주의 감독들이며, 박찬욱의 <올드 보이>와 복수시리즈, 봉준호의 <살인의 추억>과 <괴물> 등도 유명
- 공포, 스릴러 등 장르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 최근 <악녀>, <부산행>, <장산범> 등이 상업영화관에서 개봉됨.

ㅇ 2018년 12월 영화관이 아닌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는 70년대 초반 멕시코 중산층 가정 원주민 가정부의 삶을 흑백영상으로 담아, 가정내 불화와 사회적인 억압을 생생히 그려낸 작품으로 아카데미 감독상, 촬영상, 외국어영화상을 수상

13. 스포츠

가. 축구

ㅇ 멕시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로서 1970년과 1986년 두 차례에 걸쳐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요 경기가 있는 날은 비즈니스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을 권유할 정도로 인기가 높음

ㅇ 멕시코의 주요 축구경기장으로는 멕시코 최대 규모이자 세계 5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아즈텍 경기장(Estadio Azteca), 멕시코국립자치대학 올림픽 경기장(Estadio Olímpico Universitario), 할리스코 경기장(Estadio Jalisco) 등이 존재

ㅇ 멕시코 프로축구는 1부 리그인 리가 MX(19개팀)와 2부 리그인 아센스(14개팀)로 나뉘며, 각 리그별로 2개의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

- 1부 리그에서 최근 2년 동안 승점이 가장 낮은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되며, 2부 리그에서 각 토너먼트 대회 우승팀끼리 홈앤드어웨이식 경기를 치러 1부 리그 승격 팀을 결정

※ 치차리토(Chicharito, 본명은 Javier Hernández, 1988년 멕시코생) :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니이티드에서 박지성과 같이 활약한 골잡이로서, 최근 프리미어리그 통산 50골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활약중

ㅇ 지난 2018년 제21회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2-0으로 물리친 덕분에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하게 되어, 멕시코 내 한국 기업과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

나. 야구

○ 멕시코는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쿠바 등과 함께 MLB의 주요 라틴계 선수 공급처로 왕년의 LA 다저스 에이스인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현 메이저리거이며 한때 류현진의 동료이자 도우미 역할을 한 아드리안 곤잘레스 등의 선수를 배출

○ 야구리그는 하절기의 멕시칸리그(LMB)와 동절기의 멕시칸퍼시픽리그(LMP)로 나뉘어져 있으며 멕시칸리그 총 팀수는 16개

다. 프로 레슬링

○ 멕시코에서 축구 다음으로 절정의 인기를 구사하는 종목으로 루차 리브레(Lucha libre)라 불리며, 멕시코 문화에 있어서 마스크를 쓴 레슬러는 가장 강력한 대중문화 아이콘 중 하나로 현지 TV 채널을 통해 프로레슬링 경기 상시 중계

※ 엘 산토(El Santo)는 멕시코 루차리브레 열풍의 시초가 된 전설적인 인물로 링 위에서 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로 진출하면서 멕시코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정의의 상징이자 영웅

※ 2006년 잭블랙이 프로레슬러로서의 수입으로 고아를 보살핀 성직자 세르지오 쿠티에레스의 실화를 영화화한 “나초 리브레”를 제작 발표하는 등 여전히 높은 인기를 구가 중

라. 권투

○ 권투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미겔 칸토, 구티 에스파다스, 알폰소 사모라, 카를로스 사라테, 루벤 올리바레스, 카를로스 팔로미노, 호세 피피노 쿠에바스 등 세계챔피언도 많이 배출

※ 훌리오 세사르 차베스(Julio César Chávez) : 멕시코의 전설적인 권투선수

※ 피피노 쿠에바스(El Pipino Cuevas) : WBA 웰터급 챔피언이었고, 11차 방어까지 성공한 멕시코의 슈퍼 파이터. 한국의 황준석 선수에게 패한 바 있음.

※ 미겔 칸토(Miguel Canto) : '링 위의 대학교수'. 1979년 부산에서 열린 WBC 플라이급 챔피언 경기에서 한국의 박찬희에 패배

마. 태권도

ㅇ 1969년 한국인 문대원 사범이 멕시코에 태권도를 최초로 전파한 이래 멕시코 내 태권도의 인기가 대단

- 약 200만 명의 인원이 태권도를 수련중

ㅇ 태권도장 수는 전국적으로 4,000여개에 이르며 대부분 현지인이 사범이며 한국인 사범은 20여명 정도 활동

ㅇ 2012년과 2013년 멕시코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한국인 감독 선임

* 남자국가대표팀 감독 방영인, 여자국가대표팀 감독 방영선

ㅇ 2008 베이징올림픽 태권도 부문에서 Guillermo Pérez와 María Espinoza가 금메달 2개를 획득

ㅇ 2012 런던올림픽 태권도부문에서 María Espinoza가 동메달 1개 획득

ㅇ 2016 리우올림픽 태권도 부문에서 María Espinoza가 은메달 1개 획득

ㅇ 2019 멕시코 태권도 전파 50주년(멕시코내 태권도장 500여개)

바. 투우

ㅇ 스페인의 영향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 중 하나로 대부분의 대도시는 투우장을 보유

ㅇ 멕시코시티의 Plaza México는 세계 최대 규모로 5만 5천명을 수용

14. 축제

ㅇ 거의 매달 주요한 국경일과 축하행사가 있으며, 각 마을마다 수호성인의 날 등 축제 개최

- 2월 하순 또는 3월 초순경 사순절 직전 수요일부터 열리는 카르나발(carnaval, 카니발)은 대규모 축제

멕시코의 대표적인 축제

ㅇ 과나후아토 세르반티노 축제

-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멕시코의 작은 도시 '과나후아토'에서 매년 10월 중 20일간 열리는 행사로 세계 4위 규모의 종합예술축제
- 소설 돈키호테를 쓴 '미겔 데 세르반테스'에게 헌정하는 의미의 축제명
- 축제 내내 마리아치, 중세복장을 한 '에스투디안티나' 등 도시 전체를 무대로 하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짐.
- 2015년 해외문화홍보원 주관으로 한국특집 프로그램(최상철 현대무용단, 브레시트 무용, 아트 프로젝트 보라 등 현대무용단) 개최

ㅇ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 1987년 과달라하라 대학에 의해 시작된 축제로 현재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큰 도서 시장
- 매년 많은 작가들과 출판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책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거래
- 우리나라도 매년 동 축제에 참가중이며, 최근 도서전 사무국에서 우리나라를 2021 또는 2022년 주빈국으로 초청 의사 전달

ㅇ 디아 데 무에르토스(죽은 자들의 날)

- 11월 1일, 2일 개최되며, 가장 멕시코적인 축제
- 가족들은 집안에 제단을 설치하고 화환과 선물을 들고 조상의 묘지를 참배
- 사람 뼈 모양의 음식들을 거의 모든 시장에서 판매
- 디즈니 애니메이션 <코코>의 문화적 배경

15. 사회간접자본

가. 도로

○ 범미주고속도로가 미국에서 멕시코 중심부를 횡단, 과테말라로 연장

○ 전국 도로망은 양호하며 지속적으로 확장중이며, 대중교통으로 고속버스 인프라가 발달

나. 철도

○ 1930년대 초 주요 간선이 건설된 이래 추가 투자가 미흡

○ 철도산업은 1937년 국유화되었으나, 1996년 민영화 이후 외국기업에도 투자 개방

- 현재 철도의 총연장은 26,704㎞로 주로 상업용 철도로 이용

○ 승객용 기차는 “멕시코의 그랜드캐년”으로 불리는 치와와주에서 운행되는 Chepe 관광기차가 대표적이며, 승객용 철도 운송의 92%를 차지

다. 항공

○ 광활한 영토로 인해 멕시코 전역에 항공노선 발달

○ 멕시코의 항공인프라는 중남미에서 가장 발달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의 모든 도시가 공항을 보유

- 국내 공항 수는 총 77개(2017년 기준)이며, 이 중 20개가 주요국제공항으로 운영
-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은 연간 4천만명 이상의 승객을 담당하며 중남미 1위, 세계 43위 규모

ㅇ 주요 항공사로는 Aeromexico, Interjet, Volaris 등이 운항

< 화폐로 보는 멕시코 인물 >

화폐	인물	전면
20 페소 (≒ 1,200원)	베니토 후아레스 (Benito Juárez): 멕시코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자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	
50페소	호세 마리아 모렐로스 (José María Morelos): 가톨릭 사제이자 독립군이었으며 미겔 이달고 신부의 뒤를 이어 멕시코 독립전쟁을 주도한 인물	
100페소	네사우알코요틀 (Nezahualcóyotl): 15세기 철학자, 시인이며 고대멕시코 텍스코코지역의 통치자. 나우아틀어로 '배고픈 늑대'라는 뜻의 군주로서 우리나라 세종대왕에 비견되는 인물로서 예술, 과학, 문학을 장려한 왕. 오늘날에도 그의 시작품이 전해짐.	
200페소	소르 후아나 이네스 데 라 크루즈 (Sor Juana Inés de la Cruz):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시문학을 뛰어넘은 누에바 에스파냐의 최고 시인이자 철학자이며 당대 최고의 지성. 멕시코 지성의 상징	
	미겔 이달고 (Miguel Hidalgo, 좌측) : 최초로 멕시코 독립을 외친 자유주의적 가톨릭 사제로 멕시코 독립의 영웅이자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 호세 마리아 모렐로스(José María Morelos, 우측)	
500페소	프리다 칼로/ 디에고 리베라(Frida Kalho/ Diego Rivera): 이들 부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멕시코 문화의 아이콘.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여류화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디에고 리베라는 멕시코 벽화운동의 거장.	
	베니토 후아레스 (Benito Juárez): 멕시코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자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	
1,000페소	미겔 이달고 신부 (Miguel Hidalgo): 멕시코 독립전쟁의 아버지이자, 독립선언을 외친 신부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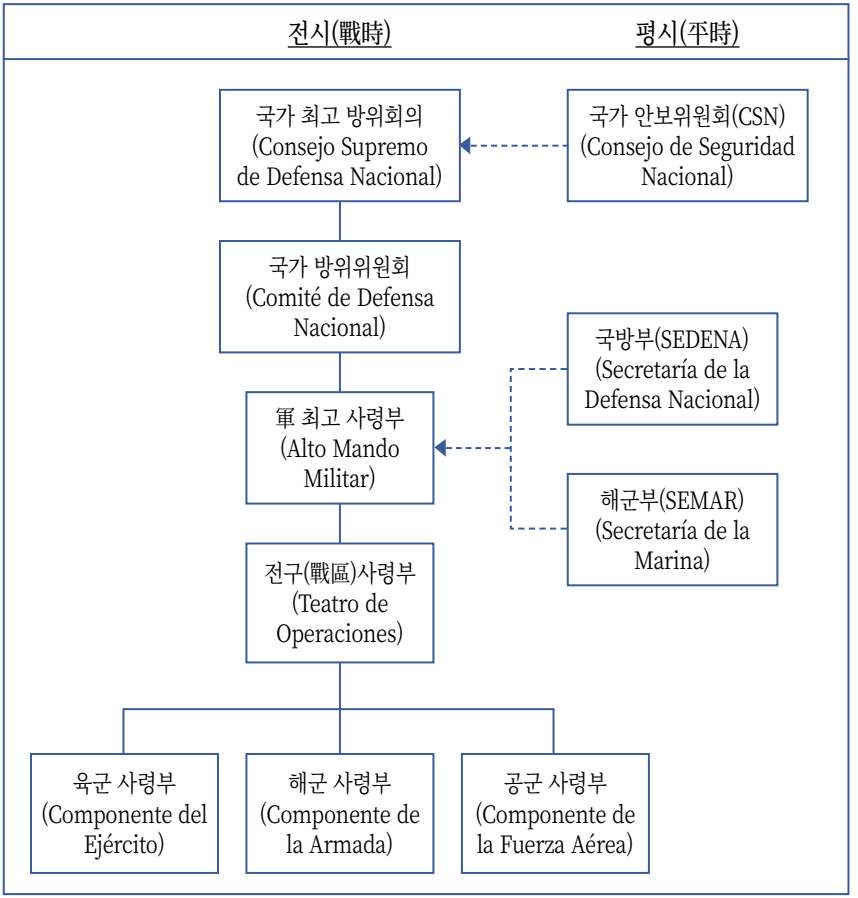
군 사

1. 국방기구
2. 병역제도
3. 군 편성
4. 군사관련 특징



1. 국방 기구

가. 국가안보 기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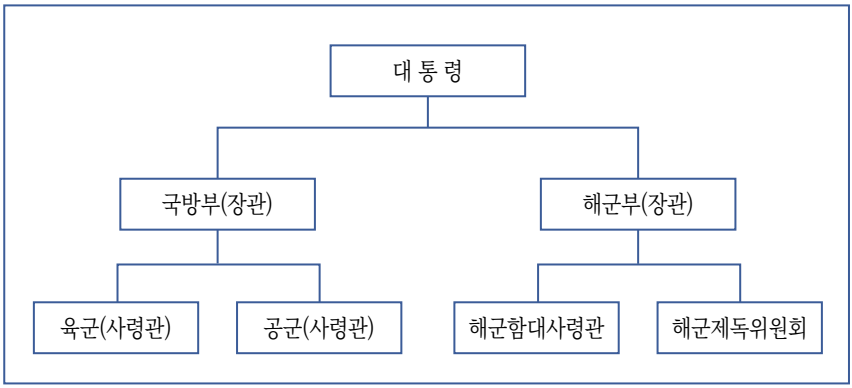


☞ **체계상 특징**

- 대통령은 軍 최고 통수권자이며, 국방부(SEDENA)와 해군부(SEMAR)의 장관은 현역 대장이 직무 수행

- 국방부 장관은 육군 및 공군을 관장하며, 육군 12개 광역사(Región Militar, 지휘관 : 중장)와 공군 4개 공역사(Región Aérea, 지휘관 : 중장)를 지휘
- 해군부 장관은 해군과 해병을 관장하며, 해양 관련 전반적 업무(해상 교통 통제 등)를 수행
- 안보 위협 관련 대통령 보좌기구(평시)로서 국가 안보위원회(CSN) 설치, 운영

나. 국방조직 기구도



* 국방장관(육군대장)이 육군사령관 겸임

* 해병(해군소장, 해병대조정관-해병대사령관 역할) 및 해군항공은 해군에 예속

☞ 조직상 특징

- 국방부 및 해군부로 2원화 조직 편성

  ☞ 과거 쿠데타 발생 빈번으로 군부 영향력 약화 일환 (상호 견제)
- 국방장관이 육군 및 공군을 통합 관장
- 해군장관은 해군(해병) 및 해경, 해양수산(민간) 분야 관장

-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와 유사한 조직은 없음

  ☞ 통합군 개념으로 편성된 국방부에서 동 기능수행

- 군사조직은 행정과 작전조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바, 행정조직은 지역(Región-Zona-Sector) 개념으로, 작전조직의 경우 육군은 1개 군단(Cuerpo de Ejercito), 해군은 2개 함대(Fuerza Naval), 공군은 18개 비행단(Base Aérea, 18개)으로 작전수행 단위별 편성 및 운영
- 사관학교는 국방부에서 4년제의 육군사관학교 및 공군사관학교를, 해군부 5년제의 해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
- 간호사관학교(4년제)와 군의학교(5년제)의 경우, 양 군에서 각각 운영하며 각개 학교에 사관생도로 입교하여 간호장교 및 군의장교로 임관

다. 국방정책(국방목표)

ㅇ 영토, 주권 및 자주독립의 보전

ㅇ 민간 재해복구 지원 및 필요시 공공질서 유지

ㅇ 마약재배, 밀입국 단속 및 對마약작전 수행

ㅇ 해상교통로, 어로 보호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통제

라. 군사전략(국가방위계획(DN) / Plan de Defensa Nacional)

* 1985년 이후 특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방위계획을 수립 시행중

ㅇ 국가방위계획 I(Plan de Defensa Nacional I : DN-I)

- 외부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군의 준비계획

ㅇ 국가방위계획 II(Plan de Defensa Nacional II : DN-II)

- 내부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군의 준비계획

ㅇ 국가방위계획 III(Plan de Defensa Nacional III : DN-III)

- 국가적인 재난(지진, 화산폭발, 태풍, 허리케인, 홍수 등 모든 자연재해 및 대형사고 등 재난)에 대비한 준비계획

※ 국방부(SEDENA)와 해군부(SEMAR)에서 각각의 계획을 보유

마. 군사력 현황('19.1월, 279,010명)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183,562명	30,595명	64,853명(15,000명)

☞ 여군 : 약 35,395명으로 12.7% 수준
(육·공군: 25,395명, 해군 10,000명)

2. 병역제도

가. 지원병제(3년) 및 의무복무제(1년)의 혼합형

○ 지원제가 기본으로 18~30세의 청년이 지원 / 계약(3년)

☞ 3년 근무 후 계약갱신에 의해 계속 근무 가능하며,
근무성과 및 해당 교육 수료 여부에 따라
'병사' → '부사관' → '장교'로 진급 가능

* 모든 장교 후보생은 각군 사관학교 과정에 입학하여 교육 후 장교로 임관 (ROTC, 학사 장교와 같은 제도 없음)

○ 의무복무제는 사회복무요원(Servicio Nacional Militar) 제도로 운영되며, 지원제로 군에 입대하지 않는 모든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남성은 스스로 추첨을 실시, 지정된 인원은 주말(공휴일)에만 지정된 부대에 집결하여 4시간씩 1년간 복무

나. 징병 검사(지원병 제외)

○ 일반적으로 18~30세를 대상으로 연간 부대별 소요를 고려하여 검은돌 및 흰돌 중 1개를 선택하여 복무토록 하는 추첨제 운영

○ 당해년도 의무복무 대상자는 지정된 일자에 특정장소로 집결, 인근부대 군의관 및 간호장교에 의해 신체검사 실시

○ 체력검사 종목은 200m 달리기, 철봉,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을 실시하며,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병행하여 실시

다. 기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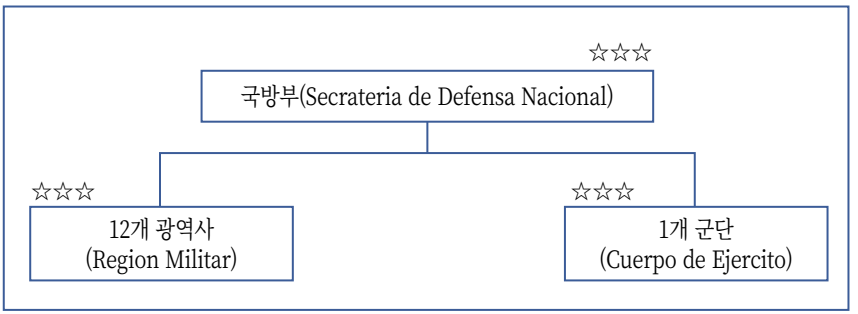
ㅇ 멕시코의 안보상황은 표면적인 주적 개념은 없으며 기본적으로 인접 국가와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

ㅇ 멕시코 군의 주요 관심분야는 對마약작전에 대한 효과적인 수행이며, 병역제도 역시 유사시 대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운영

3. 군 편성

가. 육 군

ㅇ 기본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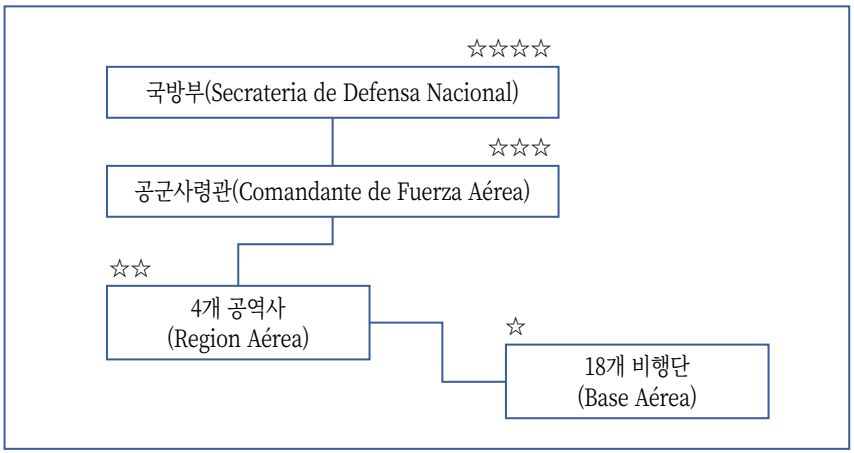
ㅇ 특 징

- 31개 주 및 1개 연방구를 중심으로 전국을 12개 광역으로 구분하는 행정조직과, 기동부대로서 작전의 유연성을 확보한 작전조직으로 구성
- 행정조직인 광역사(Región Militar)는 육군중장이 지휘관이며, 예하에 2~6개의 지역사(Zona Militar)를 편성하고, 각 지역사에는 1~5개의 보병대대를 편성
- 작전조직은 멕시코시티에 제1군단(Primer Cuerpo de Ejercito)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예하에 3개의 보병여대, 1개 포병여단, 1개 공병연대 및 1개 기병대대 등으로 편성

  ☞ 동 군단은 멕시코시티의 수도방어와 광역사(RM) 지역에서 상황 발생시 예비부대 또는 지원부대의 임무를 수행

나. 공 군

ㅇ 기본 편성



ㅇ 특 징

- 멕시코 공군사령부(사령관 공군 중장)는 국방부 예하에 편성, 전국을 4개 공역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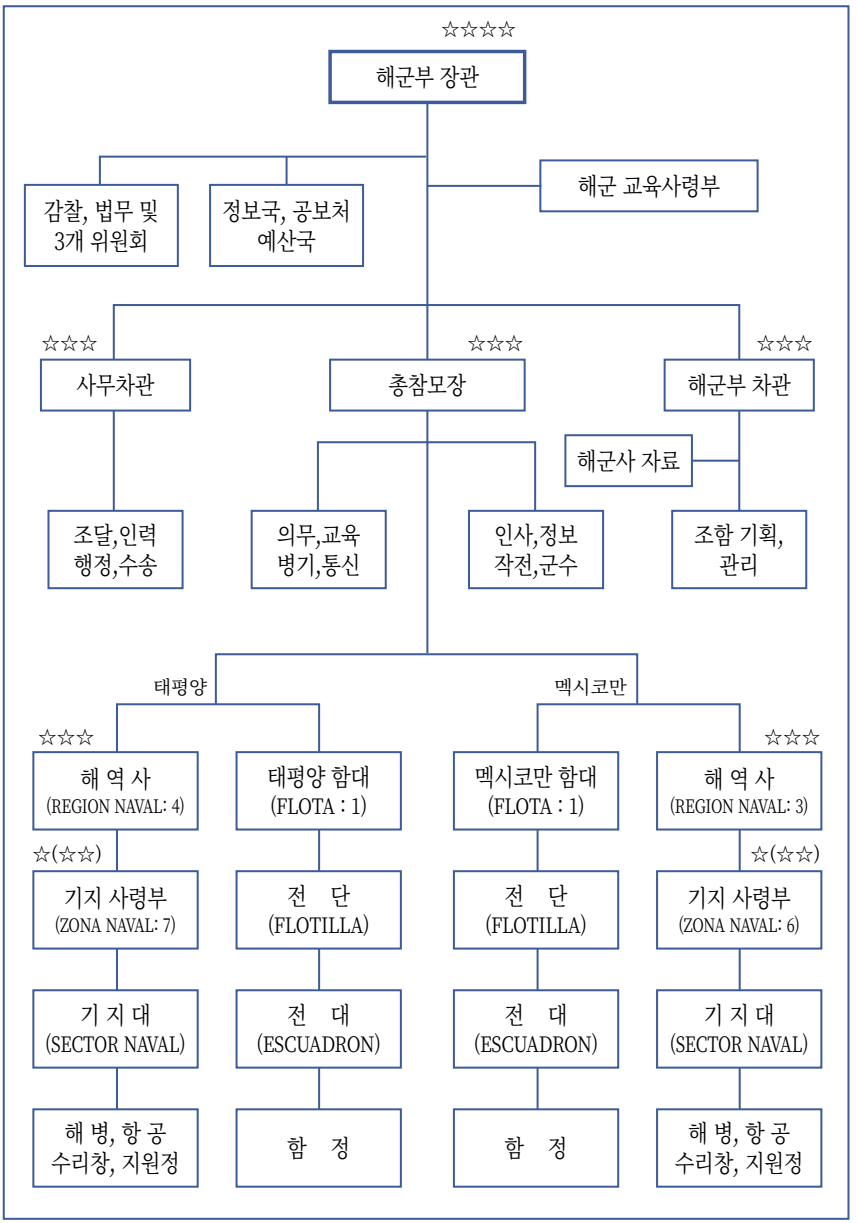
  * 북서부 공역사, 북동부 공역사, 중부 공역사, 남동부 공역사

- 각 공역사(Región Aérea)는 해당 공역에 대한 항공통제 임무 및 해 비행단(Base Aérea)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

- 각 공역사는 공군 소장이 지휘하며, 예하에 3~7개의 비행단을 편성

다. 해 군

ㅇ 기본 편성


☆☆☆☆
해군부 장관
감찰, 법무 및 3개 위원회
정보국, 공보처 예산국
해군 교육사령부
☆☆☆
사무차관
☆☆☆
총참모장
☆☆☆
해군부 차관
해군사 자료
조달,인력 행정,수송
의무,교육 병기,통신
인사,정보 작전,군수
조함 기획, 관리
태평양
멕시코만
☆☆☆
해 역 사 (REGION NAVAL: 4)
태평양 함대 (FLOTA : 1)
멕시코만 함대 (FLOTA : 1)
☆☆☆
해 역 사 (REGION NAVAL: 3)
☆(☆☆)
기지 사령부 (ZONA NAVAL: 7)
전 단 (FLOTILLA)
전 단 (FLOTILLA)
☆(☆☆)
기지 사령부 (ZONA NAVAL: 6)
기 지 대 (SECTOR NAVAL)
전 대 (ESCUADRON)
전 대 (ESCUADRON)
기 지 대 (SECTOR NAVAL)
해 병, 항 공 수리창, 지원정
함 정
함 정
해 병, 항 공 수리창, 지원정

ㅇ 특 징

- 해군부는 국가 해상방호를 위한 해군(해병 포함)의 기능과 해양정책을 담당하는 행정 각료기능을 동시에 수행

  ※ 해양에 관한 전반적 업무, 즉 해양정책, 해상교통, 항만통제 및 군사적 기능을 총괄하며, 항구건설 및 항만발전은 통신교통성이 담당

- 장관을 보좌하기 위한 기구(각 해군중장)로서, 차관, 사무국, 참모국 및 감찰국으로 구성되며, 해군부 차관은 주요국을 총괄하는 기능보다는 행정 및 지원을 담당하는 일반참모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 해군부의 일반행정 및 연구개발 기능 외에, 작전적 기능의 총참모국을 별도로 구성하여 해군 총사령관(해군 장관)의 임무를 보좌
- 각 해역사(Región Naval)는 해군중장 지휘하에 책임해역에 대한 해상교통 및 항만통제 임무를 수행하며, 예하에 1~3개의 기지사령부를 편성 운영
- 행정적으로 7개 해역사(지휘관 : 중장), 13개 기지사(Zona Naval, 지휘관 : 소장), 14개 기지대(Sector Naval, 지휘관 : 준장)를 편성 / 운용
- 해병대는 총 15,000여명이며 해군부 본부에 해병대본부가 위치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정식 직함은 해병대조정관(Coordinador de la Infantería Marina)이며, 태평양과 멕시코만에 해병여단이 각각 위치, 각 해역사로 병력을 배치하여 주요시설 경계, 마약퇴치작전, 순찰 등 임무 담당(해군사관학교 교육부터 해병대로 분류하여 교육)

4. 군사 관련 특징

가. 군부의 영향력

ㅇ 과거 군부에 의해 독립이 쟁취되고, 건국의 중심인물이 군인 출신이었는바, 여전히 군부의 영향력을 높은 편이나, 쿠데타 재발방지를 위해 국방부와 해군부로 2원화 편제

ㅇ 혁명 이후 민정이양과 민주화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결과, 이후 군부 쿠데타 등 정치개입 없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

나. 군사력 운용

ㅇ 중남미 국가 간 상호보호 및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여 대외의 직접적인 위협은 없으나, 대외 위협보다는 마약과의 전쟁 등 내부의 위협에 군사력 운용

ㅇ 국내 치안유지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해 군사력이 직접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특히 민사작전에 대해 지역별로 체계적인 조직과 즉각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보유

다. 군사력 건설 방향

ㅇ 가상 敵이 없는 관계로 軍의 임무가 국내치안 유지, 對마약작전 위주로 변화되었고, 전력증강사업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중 및 해상 감시능력 보강 등에 중점 추진

ㅇ 주재국 국방예산은 대부분 전력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방위력 개선비(신 무기체계 도입 등)는 필요시 특별예산으로 편성, 의회 의결(승인)을 거쳐 별도 처리

라. 對마약작전 위주 전력 운영

ㅇ 지정학적으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수송로 또는 중간기지에 위치함에 따라, 對마약작전이 軍의 주요 임무와 작전활동

- 국방부 총참모부에 對마약작전국(S-7)를 편성하여 관련 작전을 전담 수행
- 마약 주요 루트, 근거지를 대상으로 마약재배 지역 탐색 및 제거, 마약 및 불법무기 유통 통제, 카르텔 요원 색출 및 체포 등 역할 수행 중

  ☞ 2018년 12월 1일 新정부 출범 이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지시로 국가방위대(Guardia Nacional)을 창설하여 국내치안 및 마약 업무를 수행

VIII

한국과의 관계

1. 멕시코의 대한국 인식
2. 한국의 대멕시코 외교정책
3. 주요 외교연표 및 역대공관장
4. 협정체결 현황
5. 정상 및 외교장관 회담
6. 최근 주요인사 및 사절단 교류
7. 협의체 현황
8. 의원친선협회
9. 한국-멕시코 무역현황
10. 한국-멕시코 투자현황
11. 최근 문화교류 활동
12. 재외국민 및 후손사회 현황
13. 명예영사
14. 군사교류



1. 멕시코의 대한국 인식

ㅇ 멕시코는 보편주의 외교의 기본원칙 하에 북한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와 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는 원칙적으로 남북한간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입장 견지

ㅇ 한-멕 관계에서 양국 모두 경제통상관계에 우선을 두고 있으나, 멕시코 측은 한국을 협력과 경쟁의 양측면에서 인식하는 경향

- 우리의 경제발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특히 아시아 제3의 경제 파트너로서 중요성을 부여하면서도, 산업계 일부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위협요인으로 인식

2. 한국의 대멕시코 외교정책

ㅇ 전략적 동반자 관계(2005년 수립) 구축

- 양국은 세계 10위권의 유사한 경제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서 UN, WTO, OECD, APEC, G20, FEALAC 등 국제무대에서 인권·안보·개발·환경·노동·금융위기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유사한 입장 공유

ㅇ MIKTA 핵심 회원국

- 2013년 9월 한국과 멕시코는 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의 공유, 규모의 유사성 등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와 함께 MIKTA 협의체를 창설, 국제무대에서 중견국 외교의 지평을 확대

  ※ 전세계에서 MIKTA 회원국의 비중은 △인구 약 7%, △교역 약 8.5%, △GDP 약 7.5% 차지

- MIKTA 회원국간에 2019년 10월 현재까지 총 15차례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상시 협력 체제 가동중
- 한편, 국회의장회의, 국방회의, 통상대화 등 외교 분야 외에 국회 및 여러 부처에서 다방면으로 협력 진행중
- 남북정상회담 환영,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규탄, 멕시코 지진 위로 등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등 활발한 활동 전개
- 금년 MIKTA 의장국으로 9월 유엔 MIKTA 외교장관회의, 11월 MIKTA 국회의장회의 개최

ㅇ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및 중남미 진출의 전진기지 성격

- 대멕시코 투자는 1988년 삼성전자의 Tijuana 생산법인 투자가 효시이며, 1994년 NAFTA 발효와 함께 미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및 중남미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

ㅇ 양 국민간 문화교류 증진 등 상호이해 및 협력 강화

- 중남미 대륙 최초의 한인 이주 및 정착국으로서 역사적·문화적 유대감
- 최근,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높은 인기를 활용하여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리는 공공외교 적극 추진중

3. 주요 외교연표 및 역대공관장

- 1948.12.12. 멕시코, 한국 승인
- 1962.1.26. 국교수립
- 1962.7.11. 이성가 초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64.11.27. 오천식 제2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67.3.27. 초대 주한멕시코대사 신임장 제정 (Francisco de Icaza, 일본 상주)
- 1967.12.25. 최경록 제3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69.3.14. 제2대 주한멕시코대사 신임장 제정 (Julián Rodríguez Adame, 일본 상주)
- 1972.2.17. 제3대 주한멕시코대사 신임장 제정 (Gustavo Romero Kolbeck, 일본 상주)
- 1972.3.1. 이창희 제4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74.11.15. 제4대 주한멕시코대사 신임장 제정 (Manuel Álvarez Luna, 일본 상주)
- 1975.10.2. 정상문 제5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77.7.7. 제5대 주한멕시코대사 신임장 제정 (Xavier Olea Muñoz, 일본 상주)
- 1978.3.31. 멕시코 주한 상주공관 개설 (Jesus Domeneq 대사대리 부임)

- 1978.8.1. 현시학 제6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80.2.15. 제6대 주한멕시코대사 신임장 제정 (Francisco Xavier Alejo López, 일본 상주)
- 1981.1.20. 신동원 제7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82.3.23. 제7대 주한멕시코대사 신임장 제정 (Palacio García Reynoso, 일본 상주)
- 1983.11.1. 제8대 주한멕시코대사 신임장 제정 (Sergio González Gálvez, 일본 상주)
- 1984.6.15. 구충회 제8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85.8.2. 멕시코 대외무역청(IMCE) 서울사무소 개설
- 1987.2.23. Ricardo Galán Méndez 초대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987.4.23. 탁나현 제9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90.1.16. 이복형 제10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90.2.6. Cassio Luiselli Fernández 제2대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993.2.24. 이상진 제11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93.6.29. Manuel Uribe Castañeda 제3대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995.8.9. Cecilio Garza Limón 제4대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996.4.9. 라원찬 제12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99.3.16. 주진엽 제13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99.12.22. Rogelio Granguillhome Morfín 제5대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01.3.20. 강웅식 제14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03.8.4. 조규형 제15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05.5.17. Leandro Arellano Reséndiz 제6대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06.3. 원종찬 제16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09.7. 조환복 제17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10.3. Martha Ortiz de Rosas Gómez 제7대 주한상주대사 부임
- 2012.10. 홍성화 제18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13.8. José Luis Bernal 제8대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15.6. 전비호 제19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17.7.18. Bruno Figueroa Fischer 제9대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18.5.7. 김상일 제20대 대사 신임장 제정

4. 협정체결 현황

가. 양국 정부간 협정

- ㅇ 1966.4.29. 한·멕 문화협정
- ㅇ 1966.12.12. 한·멕 무역협정
- ㅇ 1979.3.5. 한·멕 사증면제각서
- ㅇ 1988.7.21. 한·멕 항공협정
- ㅇ 1989.11.9. 한·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 ㅇ 1991.9.25. 한·멕 경제사회개발협력의정서
- ㅇ 1991.9.25. 한·멕 과학협력약정
- ㅇ 1994.10.6. 한·멕 이중과세방지협약
- ㅇ 1995.2.24. 한·멕 전기통신협력양해각서
- ㅇ 1996.11.29. 한·멕 관광협력의정서
- ㅇ 1996.11.29. 한·멕 범죄인인도조약
- ㅇ 1997.6.27. 한·멕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
- ㅇ 2000.11.14. 한·멕 투자보장협정
- ㅇ 2001.6.4. 한·멕 항공협정 개정 및 보완협정
- ㅇ 2001.6. 한·멕 과기협력양해각서

- 2005.9. 한·멕 세관협력협정
- 2007.1. 한·멕 형사사법공조조약
- 2012.6.17. 한·멕 원자력협력 협정

나. 양국 기관간 협정

- 1990.5.21. 한·멕 올림픽위원회간체육교류약정
- 1992.2.26. 중소기업관리공단과 멕시코국가개발은행(NAFIN)간 중소기업협력양해각서
- 2000.11.9. 외교안보연구원과 멕시코 외교아카데미(Matiás Romero 연구원)간 협력약정
- 2000.11.9. 문화관광부와 멕시코청소년청간 청소년협력 약정
- 2005.9.9. 산업자원부와 멕시코 경제부 기관간 광물자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2005.9.9. 산업자원부와 멕시코 경제부 기관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2005.9.9. 행정자치부와 멕시코 공공행정부간 협력약정
- 2005.9.9. 정보통신부와 멕시코 통신교통부 기관간 디지털 방송 기술협력에 관한 행정협정
- 2005.11.9. 중소기업청과 멕시코 경제부간 양해각서
- 2007.3.23. 국회사무처와 멕시코 하원 사무처간 양해각서

- 2011.12.7. 환경부와 멕시코 환경자원부간 협력 양해각서
- 2012.3.23. 양국 지적재산권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특허청)
- 2013.3.23. 양국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협약
- 2013.5.14. 한국연구재단과 멕시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간 협력 양해각서
- 2013.9.23. 중기청과 멕시코 국가창업원간 중소기업 발전 양해각서
- 2014.2.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멕시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간 협력 양해각서
- 2014.3.10. 보건복지부와 멕시코 COFEPRIS(보건안전보호위원회)간 업무협력 양해각서
- 2014.3.11. 관세청간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AEO MRA) 협약
- 2014.4.14. 외교부와 멕시코 외교부간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에 관한 양해각서
- 2014.5.22. 보건복지부와 멕시코 보건부간 보건의료분야 협력 양해각서
- 2014.5.27. 식약처와 멕시코 COFEPRIS(보건안전보호위원회)간 업무협력 양해각서
- 2015.10.27. 행정자치부와 멕시코 공공행정부간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
- 2016.4.4.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멕시코 과학기술위원회간 협력 양해각서

- 2016.4.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멕시코 과학기술위원회간 협력 양해각서
- 2016.4.4. 대한민국 경찰청과 멕시코 내무부(연방경찰)간 치안 협력 양해각서
- 2016.4.4. 보건복지부와 멕시코 보건부간 보건의료기반 정보통신 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
- 2016.6.22. 미래창조과학부와 멕시코 통신교통부간 ICT 협력 양해각서
- 2016.9.30. 서울지방경찰청과 멕시코시티 치안부간 치안협력 양해각서
- 2018.3.22. 국방부와 멕 국방부간 정보교류 양해각서

다.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협정

- 1987.6.9. 마산-사포판시간 자매결연의정서
- 1992.10.5. 서울-멕시코시간 자매결연의정서
- 1995.1.17. 부산시-티후아나시간 자매결연의정서
- 1996.5.13. 경기도-멕시코주간 자매결연양해각서
- 1997.3.10. 경상남도-할리스코주 자매결연협정
- 1997.4.18. 대전시-과달라하라주 자매결연협정
- 1997.9.17. 안양시-나우칼판시 자매결연협정

- 1998.11.19. 구미시-메히칼리시간 자매결연협정
- 1999.11.8. 수원시-톨루카시간 자매결연협정
- 1999.11.15. 충청북도-콜리마주간 자매결연협정
- 2002.9.3. 여수시-케레타로시간 자매결연협정
- 2005.5.8. 서울시 서초구-멕시코시티 과우테목구간 우호협정
- 2007.10.15. 인천시-메리다시 자매결연 협정
- 2013.11.5. 종로구-산미겔데아옌데 자매결연 협정

5. 정상 및 외교장관 회담

가. 정상 방문 및 회담

- 1991.9월 노태우 대통령 멕시코 공식 방문
- 1996.11월 Zedillo 대통령 공식 방한
- 1997.6월 김영삼 대통령 멕시코 공식 방문
- 2001.6월 Fox 대통령 공식 방한
- 2002.10월 김대중 대통령 방멕(APEC 정상회의)
- 2005.9월 노무현 대통령 멕시코 공식 방문
- 2005.11월 Fox 대통령 방한(APEC 정상회의)
- 2008.7월 일본 G-8 회의 계기 양자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 - Calderón 대통령)
- 2010.7월 이명박 대통령 멕시코 방문
- 2010.11월 G20 정상회의 계기 Calderon 대통령 방한
- 2012.6월 이명박 대통령 방문(G20 정상회의 참석)
- 2013.10월 인도네시아 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 - Peña Nieto 대통령)
- 2016.4월 박근혜 대통령 멕시코 방문

나. 외교장관 회담

- 1990.9월 제45차 유엔총회시
  - 최호중 장관, Solana 장관

ㅇ 1991.5월	Fernando Solana 멕시코 외무장관 방한
ㅇ 1991.9월	이상옥 장관 멕시코 방문(정상방문 수행)
ㅇ 1993.9월	제48차 유엔총회시 - 한승주 장관, Tello 장관
ㅇ 1994.10월	제49차 유엔총회시 - 한승주 장관, Tello 장관
ㅇ 1995.3월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기간중(코펜하겐) - 공로명 장관, Gurría 장관
ㅇ 1995.10월	제50차 유엔총회시 - 공로명 장관, Gurría 장관
ㅇ 1996.9월	제51차 유엔총회시 - 공로명 장관, Gurría 장관
ㅇ 1997.9월	제1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유엔총회 계기) - 유종하 장관, Gurría 장관
ㅇ 1998.10월	제53차 유엔총회시 - 홍순영 장관, Green 장관
ㅇ 2000.11월	Green 외교장관 방한시 외교장관회담(제2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ㅇ 2003.9월	제58차 유엔총회시 - 윤영관 장관, Derbez 장관
ㅇ 2004.9월	제59차 유엔총회시 - 반기문 장관, Derbez 장관

ㅇ 2005.4월 제3차 민주주의공동체(CD) 각료회의시(산티아고)
- 반기문 장관, Derbez 장관

ㅇ 2007.9월 APEC 각료회의시(시드니)
- 송민순 장관, Espinosa 장관

ㅇ 2010.2월 유명환 장관 멕시코 공식 방문, Espinosa 장관과 회담

ㅇ 2011.11월 APEC 각료회의시(호놀룰루)
- 김성환 장관, Espinosa 장관

ㅇ 2013.6월 FEALAC 외교장관회의시(발리)
- 윤병세 장관, Meade 장관

ㅇ 2014.4월 제2차 MIKTA 외교장관회의시(멕시코시티)
- 윤병세 장관, Meade 장관

ㅇ 2015.5월 제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시(서울)
- 윤병세 장관, Meade 장관과 제6차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ㅇ 2015.9월 제70차 유엔총회시
- 윤병세 장관, Ruiz Massieu 장관

ㅇ 2015.11월 APEC 정상회의시(필리핀)
- 윤병세 장관, Ruiz Massieu 장관

ㅇ 2018.11월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 강경화 장관, Marcelo Ebrard 장관

6. 최근 주요인사 및 사절단 교류

가. 방 문

- ㅇ 2010.1월 한나라당 부대변인단(성윤환, 이학재 의원)
- ㅇ 2010.1월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단장 : 이상득 의원, 정해걸, 구상찬 의원)
- ㅇ 2010.1월 서병수 국회기재위원장, 이혜훈, 유일호 의원
- ㅇ 2010.2월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공식 방문
- ㅇ 2010.3월 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단장 :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 이계진 의원)
- ㅇ 2010.3월 김영선, 이사철, 이진복, 조문환 의원
- ㅇ 2010.3월 강희락 경찰청장
- ㅇ 2011.1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ㅇ 2011.7월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안보리 개혁 차관급회의)
- ㅇ 2011.12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 ㅇ 2012.2월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G20 외무장관회의)
- ㅇ 2012.2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G20 재무장관회의)
- ㅇ 2012.3월 최광식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 ㅇ 2012.3월 윤종수 환경부 차관

- 2012.3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제30회 세계산업보건회의)
- 2012.3월 이수원 특허청장
- 2012.4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G20 통상장관회의)
- 2012.5월 곽영진 문광부 차관(G20 문화장관회의)
- 2012.5월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G20 농업차관회의)
- 2012.5월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G20 노동차관회의)
- 2012.11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G20 중앙은행총재회의)
- 2012.11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G20 재무장관회의)
- 2012.11월 윤원중 국회 사무총장
- 2012.11월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2012.12월 김황식 국무총리(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특사)
- 2013.1월 장윤식 예결위 위원장
- 2013.1월 국회 정무위 김영주, 송호창, 이종걸 의원
- 2013.1월 국회 외통위 정문헌, 유인태 의원
- 2013.2월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 2013.3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 2013.4월 강창희 국회의장(G20 국회의장회의)
- 2013.5월 국회 기재위 나성린, 조정식, 이인영, 류성걸, 박원석 의원

- 2013.7월 김태환 대한태권도협회장
- 2013.7월 조정원 세계태권도협회장
- 2013.8월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 2013.9월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 2013.9월 정연만 환경부 차관
- 2013.11월 오영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 2014.1월 이진복 단장, 전정희 의원, 윤재옥 의원(제22차 아태의회 포럼(APPF) 참석)
- 2014.1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안보리 개혁 차관급회의)
- 2014.1월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김성태, 홍영표 의원)
- 2014.1월 서병수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 특사(박대출 의원)
- 2014.1월 홍순직 무역위원장
- 2014.1월 정준양 포스코 회장
- 2014.2월 이병현 국립국제교육원장
- 2014.3월 조환익 한전사장(Norte Ⅱ 복합화력발전소 준공식)
- 2014.3월 백운찬 관세청장
- 2014.4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제2차 MIKTA 외교장관회의)
- 2014.5월 정우택 의원(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참석 특사)

- 2014.5월 정창호 ICC 재판관 후보(ICC 재판관 선거지지 교섭)
- 2014.5월 홍문종 의원(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특사)
- 2014.6월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
- 2014.10월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제5차 한-멕 고위정책협의회)
- 2014.10월 정의화 국회의장 공식방문
- 2015.5월 이돈희 관세청차장
- 2015.7월 김성곤 세계한민족회의 수석부의장
- 2015.8월 한멕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전병헌, 노영민, 박대동 의원)
- 2015.11월 외통위 대표단(나경원위원장, 강창희, 강석호, 김회선, 이완영 의원)
- 2016.4월 최동규 특허청장
- 2016.5월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 2016.6월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
- 2016.11월 국회 한-중남미 협력포럼 대표단(박병석, 이춘석, 이완영, 이용득, 소병훈 의원)
- 2017.1월 예결위 대표단(주광덕, 민경욱 의원)
- 2017.3월 안총기 외교부 2차관
- 2017.4월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대표단(남궁석 의원)
- 2017.11월 강일원 헌법재판관

- ㅇ 2018.1월 국회 태권도연맹(이동섭, 손혜원 의원)
- ㅇ 2018.1월 국회 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원유철, 이양수 의원)
- ㅇ 2018.1월 국회 외통위 대표단(김경협, 이석현, 원혜영 의원)
- ㅇ 2018.2월 최수규 중기부 차관
- ㅇ 2018.4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 ㅇ 2018.7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ㅇ 2018.12월 강경화 외교장관(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특사)
- ㅇ 2018.12월 김기영 헌법재판관
- ㅇ 2018.12월 이주영 국회부의장(국회 스카우트연맹)
- ㅇ 2019.4월 한-멕 의원친선협회(김상희, 김삼화, 이원욱 의원)
- ㅇ 2019.6월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 ㅇ 2019.7월 박원순 서울시장

나. 방 한

- ㅇ 2010.1월 Juan Molinar 통신교통부 장관
- ㅇ 2011.9월 Elvira Quesada 환경부장관
- ㅇ 2011.10월 Lourdez Aranda 외교부 차관(G20 개발컨퍼런스)

- 2012.3월 Rogelio Granguillhome 외교부 경제협력실장(G20 개발그룹회의)
- 2012.3월 Jordy Herrera Flores 에너지부장관(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2012.5월 Francisco Barnes 생태연구소장(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 2012.5월 José Luis Cordova 교육부장관(APEC 각료회의)
- 2012.8월 Gloria Guevara Manzo 관광부장관(여수 엑스포)
- 2012.10월 Rafael Elvira Quesada 환경부장관
- 2012.10월 Javier Cordero Arroyo 국회 상원의장
- 2012.10월 Enrique Lendo 환경부 국제협력단장
- 2013.1월 Emilio Lozoya Auatin PEMEX 회장
- 2013.5월 Silvia Guadalupe Gar 상원의원
- 2013.6월 Juan José Guerra 환경부 장관
- 2013.6월 Enrique Matínez 농축수산식품부 장관
- 2013.6월 Victor Aguilar 무역구제 본부장
- 2013.9월 Enrique Jacob Rocha 국가창업원장
- 2013.10월 Emilio Lozoya Auatin PEMEX회장(2013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

- 2013.11월 José Antonio Rodarte Leal 통신교통부 중앙총조정관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 2013.11월 Manuel Ignacio 농지개발부 차관
- 2014.5월 Lonardo Beltrán Rodriguez 에너지부차관
- 2014.5월 Gabriel de Cárdenas 멕-한 의원친선협회 회장
- 2014.6월 Mario Moreno 꼴리마주 주지사
- 2014.10월 Elvira Quesada 환경장관(생물다양성협약 총회)
- 2015.5월 Meade 외교장관(제5차 MIKTA 외교장관 회의)
- 2015.6월 Barbosa 상원의장(제1차 MIKTA 국회의장 회의)
- 2015.6월 Aguilar Pérez 멕시코 무역위원장(무역구제 서울국제 포럼)
- 2016.6월 Andrade Martinez 공공행정부장관
- 2016.9월 Enrique de la Madrid 관광부장관
- 2017.11월 Ramirez Ramos 하원 멕-한 의원친선협회장
- 2018.1월 Ernesto Cordero 상원의장
- 2018.6월 Alvarez Sanchez Valdez 멕시코시티 치안부 작전차관
- 2019.1월 Julian Ventura 외교차관
- 2019.9월 Cora Pinedo 상원 아태위원장

7. 협의체 현황

가. 한·멕 고위정책협의회

○ 제1차 회의(1997.9., 뉴욕)

- 수석대표 : 유종하 장관, Gurría 장관

○ 제2차 회의(2000.11., 서울)

- 수석대표 : 이정빈 장관, Green 장관

○ 제3차 회의(2006.5., 서울)

- 수석대표 : 유명환 차관, Aranda 차관

○ 제4차 회의(2009.6., 멕시코시티)

- 수석대표 : 권종락 차관, Aranda 차관

○ 제5차 회의(2014.9., 멕시코시티)

- 수석대표 : 조태용 차관, de Icaza 차관

○ 제6차 회의(2015.5., 서울)

- 수석대표 : 윤병세 장관, Meade 장관

나. 한·멕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 제1차 회의(1991.4., 멕시코시티)

- 수석대표 : 한우석 본부대사, Rosental 외무차관

ㅇ 제2차 회의(1992.10., 서울)

- 수석대표 : 노창희 차관, Barros 외무차관

ㅇ 제3차 회의(1994.2., 멕시코시티)

- 수석대표 : 선준영 2차관보, Icaza 외무차관

ㅇ 제4차 회의(1996.3., 서울)

- 수석대표 : 조원일 외교정책실장, Treviño 외무차관

ㅇ 제5차 회의(2000.5.15., 멕시코시티)

- 수석대표 : 정의용 통상교섭조정관, Icaza 외무차관 및 de la Calle 상공차관

ㅇ 제6차 회의(2002.7.23.-24., 서울)

- 수석대표 : 김항경 외교차관, Miguel Hakim 외교차관

ㅇ 제7차 회의(2012.11.12., 멕시코시티)

- 수석대표 :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 Rogelio Granguillhome 외교부 국제경제협력실장(겸 멕시코 국제개발협력단장)

ㅇ 제8차 회의(2015.1.28., 멕시코시티)

- 수석대표 : 안총기 경제외교조정관, Juan Manuel Valle 국제개발협력단장

다. 한·멕 문화공동위원회

ㅇ 제1차 회의(1996.3월, 멕시코시티)

- 수석대표 : 전부관 문화협력국장, Emilio Cárdenas 문화국장

ㅇ 제2차 회의(2000.5월, 서울)

- 수석대표 : 김승의 문화외교국장, Jaime Nual 문화국장

ㅇ 제3차 회의(2003.7월, 멕시코시티)

- 수석대표 : 박흥신 문화외교국장, Tieri Muñoz 문화국장

ㅇ 제4차 회의(2006.6월, 서울)

- 수석대표 : 구본우 문화외교국장, Alejandro Estifil 문화국장

ㅇ 제5차 회의(2012.9월, 멕시코시티)

- 수석대표 : 한충희 문화외교국장, Cecilia Jaber 교육문화협력국장

라. 한·멕 민간경제협력위원회

ㅇ 제1차 회의(1969년)

ㅇ 제20차 회의(2003.5월, 멕시코시티)

ㅇ 제21차 회의(2004.10월, 서울)

ㅇ 제22차 회의(2010.7월, 멕시코시티)

마. 한·멕 무역산업협력위원회

ㅇ 제1차 회의(1997.6월)

- 수석대표 :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 Blanco 상공장관

※ 1차 회의 이후 양국의 사정상 개최실적 없음.

바. 한·멕 광물자원협력위원회

○ 제1차 회의(2006.6월, 멕시코시티)

- 수석대표 :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Ortiz-Vertiz 광업차관

○ 제2차 회의(2011.4월, 멕시코시티)

- 수석대표 : 박영준 지식경제부차관, Valverde 광물차관

※ 3차 회의를 2012.5월에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으나 미실시, 이후 개최 실적 없음.

사. 한·멕 중소기업공동위원회

○ 제1차 회의(2014.11월, 멕시코시티)

- 수석대표 : 김병곤 중기청 경영판로국장, Alejandro 국가창업원 조정관

○ 제2차 회의(2015.7월, 서울)

- 수석대표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Enrique Jacob Rocha 국가창업원장

아. 한·멕 경제협력공동위원회

○ 제1차 회의(2018.10월, 서울)

- 수석대표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Jose Gonzalez Anaya 재무부 장관

8. 의원친선협회

- ㅇ 1995.6월 멕시코 멕·한 의원친선협회결성(상원의원 7명)
- ㅇ 1995.9월 한국 한·멕 의원친선협회 결성(회장 : 채영석 의원)
- ㅇ 2000년 한·멕 의원친선협회 결성(위원장 : 민주당 이윤수 의원)
- ㅇ 2004.4월 멕·한 의원친선협회 결성(위원장 : PRI Valenzuela)
- ㅇ 2005.2월 한·멕 의원친선협회 결성(위원장 : 우리당 김덕규 의원)
- ㅇ 2007.12월 멕·한 의원친선협회 결성(위원장 : PRI Valdez)
- ㅇ 2009.5월 한·멕 의원친선협회 결성(위원장 : 민주당 이석현 의원)
- ㅇ 2013.1월 한·멕 의원친선협회 결성(위원장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 ㅇ 2013.11월 멕·한 의원친선협회 결성(위원장 : Gabriel de Cardenas)
- ㅇ 2016.3월 한·멕 의원친선협회 결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 ㅇ 2016.4월 멕·한 의원친선협회 결성(위원장 : Gabriela Ramirez Ramos)
- ㅇ 2019.9월 멕·한 의원친선협회 결성(위원장 : David Bautista Rivera)

9. 한국-멕시코 무역현황

가. 우리 무역에서의 멕시코

ㅇ 멕시코는 2018년 우리의 전세계 교역국 중

* 제10위 수출 대상국(115억불) (홍콩 포함시)
* 제15위 교역국(165억불)

※ 2019.1~8월 기준으로는 제10위의 수출 대상국(79억불), 제14위 교역국(116억불)

ㅇ 멕시코는 2018년 우리의 중남미 교역국 중

* 제1위 수출 대상국
* 제1위 흑자 창출국

※ 2019.1~8월 기준으로는 대중남미 수출 비중 41.3%(1위), 흑자 비중 75.5%(1위) 기록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ITA)

■ 양국 교역 관계는 지난 수년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여 2018년에는 교역액 165억불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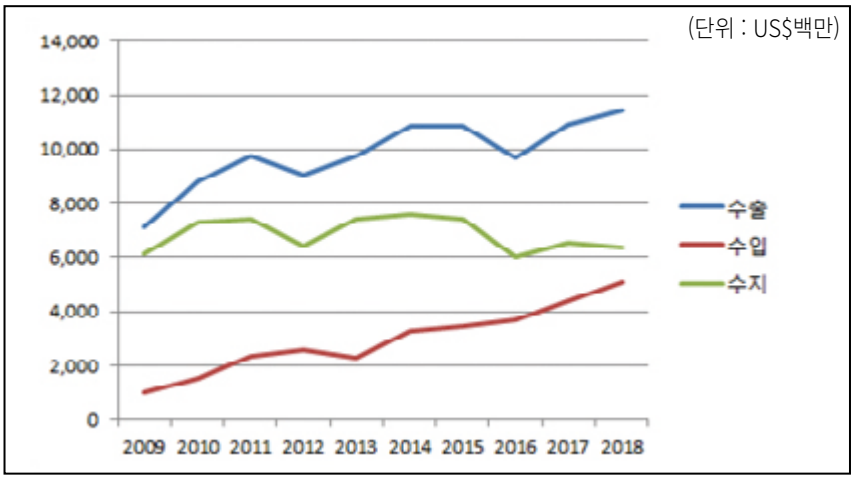
※ 멕시코는 한국의 15대 교역국(10번째 수출대상국)

※ 한국은 멕시코의 6대 교역국(5번째 수입대상국이자, 8번째 수출대상국)

-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독일에 이어 6번째

ㅇ 한국의 對멕시코 주요 수출품으로는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아연도강판 등이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원유, 기타금속광물 등 원자재 위주임

< 한국의 연도별 대멕시코 수출입 추이 >



* 자료원 : KITA,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 한국의 국가별 수출입 통계 >

(단위 : US$천불, %)

순위	국가명	2018년 (증감률은 전년대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604,859,657	5.4	535,202,428	11.9	69,657,229
1	중국	162,125,055	14.1	106,488,592	8.8	55,636,463
2	미국	72,719,932	6.0	58,868,313	16.0	13,851,619
3	베트남	48,622,098	1.8	19,643,385	21.4	28,978,713
4	홍콩	45,996,441	17.6	1,997,322	6.3	43,999,119
5	일본	30,528,580	13.8	54,603,749	-0.9	-24,075,169
6	대만	20,783,511	39.5	16,738,374	-7.4	4,045,137
7	인도	15,606,221	3.7	5,884,707	18.9	9,721,514
8	필리핀	12,037,254	13.6	3,569,396	-3.6	8,467,858
9	싱가포르	11,782,182	1.1	7,974,345	-10.4	3,807,837
10	**멕시코**	**11,458,233**	**4.8**	**5,090,068**	**15.5**	**6,368,165**

* 자료원 : KITA

< 한국의 대멕시코 주요 수출품목 >

(단위 : US$백만, %)

순위	품목명	2018년		2019.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1,458	4.8	7,553	-0.6
1	자동차부품	1,759	-5.6	1,184	-7.1
2	철강판	1,644	19.1	1,086	-0.4
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56	-26.2	828	-0.4
4	석유제품	272	7394.8	365	205.0
5	자동차	500	-21.4	349	8.3

* 자료원 : KITA, 순위는 2019.8월 기준, 증가율은 전년 대비

< 한국의 대멕시코 주요 수입품목 >

(단위 : US$백만, %)

순위	품목명	2018년		2019.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090	15.5	4,039	14.4
1	원유	2,025	42.2	1,811	22.7
2	기타금속광물	515	-12.0	392	-4.4
3	자동차 부품	305	-9.2	202	2.5
4	아연광	240	-24.9	185	26.1
5	컴퓨터	112	63.4	105	55.7

* 자료원 : KITA 주 : 증가율은 전년 대비

■ 한편, 멕시코는 2014년도부터 브라질을 추월하여 중남미 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18 중남미 교역액의 약 40%를 차지

< 2018년 중남미 주요 국가별 무역 현황 >

(단위 : US$천불, %)

순번	국가명	2018년 (12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1	멕시코	11,458,233	4.8	5,090,068	15.5	6,368,165
2	브라질	4,883,693	-11.3	3,908,060	5.6	975,633
3	파나마	2,007,502	22.3	153,026	8.3	1,854,476
4	칠레	1,807,484	18.1	4,474,551	17.6	-2,667,067
5	바하마	1,754,853	1.0	113	260.4	1,754,740
6	콜롬비아	1,011,626	24.3	834,392	28.1	177,234
7	페루	802,926	-12.1	2,474,365	16.0	-1,671,439
8	에콰도르	781,873	28.4	116,893	-8.5	664,980
9	아르헨티나	536,361	-35.9	405,944	-33.7	130,417
10	코스타리카	134,920	-19.9	206,915	48.6	-71,995

* 자료원 : KITA 주 : 증가율은 전년 대비

< '19.1~8월 중남미 주요 국가별 무역 현황 >

(단위 : US$백만, %)

순번	국가명	2019.1~8월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멕시코	7,553	-0.6	4,039	14.4	3,514
2	브라질	3,383	-1.3	2,600	-0.6	783
3	바하마	2,151	75.6	0	-71.7	2,151
4	파나마	1,044	-28	57	-53.3	987
5	칠레	879	-29.5	2,946	-9.9	-2,067
6	콜롬비아	657	16.6	510	-3.5	148
7	페루	506	-12.6	1,584	-17.5	-1,078
8	에콰도르	329	-39.1	219	167.4	110
9	아르헨티나	252	-42.7	524	108.1	-272
10	버뮤다	216	-48.9	0	22.3	216

* 자료원 : KITA, 주 :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 한국-멕시코 투자 현황

가. 한국기업의 멕시코 투자 현황

■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는 1988년 삼성전자, LG전자 진출 이래 1994년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

ㅇ 대멕시코 투자는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미국 진출을 도모하는 자동차, 철강 및 가전기업과 그 협력업체 등의 진출로 본격 개시

- '19.6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총 투자 신고액은 총 69억불(1,563건) 기록

ㅇ 트럼프 신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한국 기업들의 대멕시코 투자는 지속 증가 전망

<한국의 대멕시코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 천불, 건, 신고금액 기준)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6월
금액	508,443	1,212,766	911,122	521,723	553,096	313,963	237,049
건수	54	96	245	191	147	144	55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 주요 기업의 대멕시코 투자·진출 현황

ㅇ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 만사니요 LNG 터미널 건설·운영 사업('12.3월 완공 운영, 8.8억불 투자) ※ 가스공사(운영), 삼성물산
- Norte Ⅱ 화력발전소(433MW) 건설·운영 사업('14.3월 완공 운영, 4.2억불) ※ 한국전력(운영), 삼성물산

- 살라망까 초저유황 디젤유생산 설계 수주('14.9월, 0.8억불), EPC 수행 계약('15.12월, 5.5억불) ※ 삼성엔지니어링
- Dos Bocas 정유 플랜트 프로젝트 설계 계약 수주('19.7월, 1.07억불) ※ 삼성엔지니어링

ㅇ 철강분야

- 포스코 : 멕시코에 총 8개 법인 설립, 총 6.8억불 투자

ㅇ 자동차 분야

- 기아자동차 : 누에보레온주 빼스께리아시에 자동차 생산공장 건설

  ※ '14.8월, 10억불, 연간 30만대(필요시 40만대로 증산) 생산규모

- 현대모비스('15.1월, 4.18억불), 현대위아('15.1월, 3.71억불), 현대파워텍 등 자동차부품 16개 업체 투자(약 19억불 추산)

ㅇ 가전분야

- LG전자 : TV, 냉장고, 오븐, LCD 등 생산('00년, 5.6억불)
- 삼성전자 : LCD, LED TV, 냉장고, 에어컨 등 생산('88년, 2.55억불)

ㅇ 은행분야

- 신한은행 : 2017.12월 영업인가 취득, 2018.1월 영업개시(자본금: 7천5백만불)
- KEB하나은행 : 2019.1월 영업인가 취득, 2019.2월 영업개시(자본금: 3천5백만불)

< 멕시코 진출 주요 한국기업 (2019.2월) >

회사명	진출	취급분야	지역
삼성전자 멕시코생산법인	1988	LCD, PDP, LED 생산	TIJUANA
LG전자 멕시코판매법인	1988	가전	ESTADO MÉXICO
현대트랜스리드	1989	트레일러, 컨테이너	TIJUANA
대우일렉트로닉스 멕.판매법인	1993	가전 판매	ESTADO MÉXICO
대우일렉트로닉스 멕.생산법인	1995	가전(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생산	QUERÉTARO
삼성 SDI	1995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생산	TIJUANA
삼성전자 멕시코법인	1995	가전통신 판매 및 제조	D.F.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법인	1998	EPC	D.F.
LG전자 몬테레이생산법인	2000	냉장고, 전기 오븐 생산	MONTERREY
LG전자 레이노사생산법인	2000	LCD, PDP, LED 생산	REYNOSA
삼성전자 멕.생산법인(SEM)	2003	가전 (냉장고, 세탁기) 생산	QUERÉTARO
포스코 MPPC	2006	철강코일 가공	PUEBLA, S.L. POTOSI
포스코 MEXICO	2007	자동차용 아연 도금 강판 생산	ALTAMIRA
KMS(가스공사, 미쯔이, 삼성물산)	2008	천연가스 터미널 공사	MANZANILLO
대우인터내셔널 판매법인	2009	철강, 자동차부품, 섬유	D.F.
KST(한전, 삼성물산, 테친트)	2010	열병합발전소	CHIHUAHUA
포스코 MEXICO	2011	철강재(공장 신설)	ALTAMIRA
볼레오동광(광자공)	2011	동 광산운영 및 동 생산	SANTA ROSALIA
현대다이모스	2012	자동차 시트 생산	San Luis Potosi
LG 이노텍	2013	LED,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QUERÉTARO
현대자동차 판매법인	2014	자동차	D.F.
기아자동차 생산법인	2014	자동차 생산	PESQUERIA

회사명	진출	취급분야	지역
현대 모비스	2015	자동차 모듈, 범퍼, 램프 생산	PESQUERIA
현대 위아	2015	자동차 엔진 생산	PESQUERIA
기아자동차 판매법인	2015	자동차	D.F.
만도	2015	자동차 브레이크, 서스펜션 생산	COAHUILA
포스코 MVWPC	2015	선재가공	GUANAJUATO
기아자동차 생산법인	2016	자동차	Nuevo Leon
현대위아	2016	자동차 부품	Nuevo Leon
현대모비스	2016	자동차 부품	Nuevo Leon
현대파워텍	2016	자동차 부품	Nuevo Leon
현대다이모스	2016	자동차 부품	Nuevo Leon
GS칼텍스	2017	복합수지	Nuevo Leon
신한은행	2018	은행	D.F.
KEB하나은행	2019	은행	D.F.

나. 멕시코의 한국 투자 현황

ㅇ 멕시코의 대한국 투자는 누계기준으로 49.2백만 달러로 저조한 가운데, ‘18년의 경우 11백만불 투자

< 멕시코의 대한국 연도별 투자 현황 >

(단위 : 천불, 건)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6월	누계 (1997~)
금액	4,519	292	0	10,932	800	21,700	0	11,000	0	49,243
건수	14	3	0	7	1	2	0	0	0	27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신고 기준)

- 멕시코 기업은 섬유 및 직물 도매업 1개, 합금 제조업 1개, 종합 도매업 1개, 자동차 부품 제조업 1개, 세제 제조업 1개 등이 한국에 진출

11. 최근 문화교류 활동

- 2010.8월 한국 정가악회, 멕시코 과달라하라 공연
- 2010.9월 한국학 세미나 개최(멕시코 나야리트 자치대학)
- 2010.11월 멕시코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참가
- 2011.7월 멕시코 과나후아토 <국제영화제> 주빈국 참여
  (단편, 장편, 애니메이션 등 76편 상영)
- 2011.7월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 <현대무용제> 참여
  (대구시립무용단)
- 2011.10월 <한국문화 페스티벌> 개최(APEC 계기)
  (멕시코 시티 훌리오 카스티요 극장)
- 2011.11월 멕시코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참가
- 2011.12월 멕시코 <한류 페스티벌> 개최
  (멕시코 시티 Polyforum, 예선 60개 팀 참여)
- 2012.2월 <한국 영화제> 개최
  (멕시코 시티,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등 3개 도시, 한국 영화 10편 상영)
- 2012.3월 <제3차 한국학 학술대회> 개최
  (나야리트 자치대학교)
- 2012.3월 <한국문화 페스티벌> 개최 (양국 수교 50주년 기념)
  (멕시코 시티, Teatro de la Ciudad)
- 2012.3월 주 멕시코 <한국 문화원> 개원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멕시코 관광부 차관 참석)

- 2012.4월 2012 멕시코시티 아시아문화축제 참가
- 2012.5월 제28회 멕시코축제 한국인 피아니스트 김선우 공연
- 2012.5월 제5회 멕시코시티 우정문화제 참가
- 2012.6월 2012년 중남미 문화축제 멕시코 마리아치팀 참가
- 2012.8월 2012 K-POP 월드페스티벌 멕시코 예선 개최
- 2012.9월 2012 미주국제관광박람회 참가
- 2012.9월 K-POP스타 김준수 단독 콘서트 개최
- 2012.9-10월 국립중앙박물관 마야문명전 <2012 마야> 개최 (한-멕 수교 50주년 계기)
- 2012.10월 나야리트 자치대학교 세종학당 개소 (나야리트 자치대학교)
- 2012.10월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한-멕 수교 50주년 계기) (멕시코시티/ 푸에블라시)
- 2012.10월 인터콘티넨탈대학 <한국문화주간> 공동개최 (멕시코시티 인터콘티넨탈대학교)
- 2012.10월 2012 La Nao Acapulco 축제 참가
- 2012.11월 2012 La Calaca 축제 멕시코 죽은 자들의 날 기념 한국제례문화소개
- 2012.12월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한국문학홍보 행사 (시인 김기택, 소설가 이문열 참가)
- 2013.3월 재외예술인 김미현 도예전 <흙과 불> 개최
- 2013.3월 인터콘티넨탈대학 <한국의 날> 행사 공동개최
- 2013.5월 <아가씨를 부탁해> 멕시코 최초 유상방영

- ㅇ 2013.5-6월 제2회 한국영화주간 개최
- ㅇ 2013.6월 2013 K-POP 월드페스티벌 멕시코 예선 개최
- ㅇ 2013.6월 유키스 멕시코 콘서트 개최
- ㅇ 2013.6월 2013 한식월드베스트 멕시코 예선 개최
- ㅇ 2013.6월 2013 '탈'(태권도 공연팀) 멕시코시티 및 푸에블라시 공연
  (멕시코 외교부 차관, 푸에블라 주시사, 푸에블라 시장 참석)
- ㅇ 2013.8월 아리랑TV-Televisa 공동제작 음악다큐멘터리 제작팀 방멕
- ㅇ 2013.8월 엠블랙 멕시코 콘서트 개최
- ㅇ 2013.8월 아울로스 목관 5중주 멕시코 연주회 개최
- ㅇ 2013.8월 나야리트자치대학교 한국학과 학부과정 개설
- ㅇ 2013.9월 2013 미주국제관광박람회 한국관 운영
- ㅇ 2013.10월 아리랑TV-Televisa 방송문화교류계기 Televisa 음악 국장 방한
- ㅇ 2013.10월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전통공예문화체험
  <안녕 멕시코, 한국문화를 만나다>행사 개최
- ㅇ 2013.10월 서울국제뮤직페어(MU:CON SEOUL 2013)
  멕시코 그룹 REIK 참가(아리랑TV-Televisa 방송문화 교류계기)
- ㅇ 2013.11월 제1회 멕시코 한류포럼 개최
- ㅇ 2013.11월 한-멕 공동제작 방송프로그램
  <아리랑 스페셜: Como estas, Mexico?> 최초 방영
  (아리랑TV)

- 2013.12월 2013 멕시코 국립영화관 국제공포영화제 주빈국 참가
- 2014.1월 씨엔블루 멕시코 콘서트 개최
- 2014.2-3월 제7회 케레타로 외국문화제 한국관 운영 지원
- 2014.3월 톨루카시 청소년청 K-POP 행사 지원
- 2014.3월 제30회 멕시코축제 바이올린니스트 박지혜 공연
- 2014.4월 J'Fest 루나플라이 참가 공연 (멕시코시티/과달라하라시)
- 2014.5월 산미겔데 아옌데시 보편우애상생국제문화제 참가
- 2014.5월 멕시코시티 다문화축제(Zocalo 광장) 참가
- 2014.5월 대사관-누에보레온자치대학교간 세종학당설립 MOU 체결
- 2014.5월 톨루카 자매결연도시 박람회 한국관 운영
- 2014.6월 엠블랙 멕시코 콘서트 개최
- 2014.6월 멕시코지하철 환승역내 한국홍보 사진전 <대한민국의 아름다움과 그 궁궐> 개최 (12호선 사파타/에르미타역내)
- 2014.6월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 멕시코 예선
- 2014.8월 2015 K-Pop 월드페스티벌 멕시코 예선대회
- 2014.8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시장 개척사업 멕시코 수출상담회
- 2014.8월 영화진흥위원회 신시장 개척사업 한국영화 홍보행사
- 2014.8-9월 제 3회 멕시코 국립영화관 한국영화주간
- 2014.9-10월 제 1기 국립국악원 해외국악학교 고전무용 강습회

- 2014.10월 제 1회 한국문화원 한국어 말하기 대회
- 2014.11월 제 2회 멕시코 한류포럼
- 2014.11월 멕시코 상원 최초 <한국문화주간> 개최
- 2014.12월 LA동포예술인 미술·사진작가 <Soul of Korea> 작품전
- 2015.3월 테크놀로히코 데 몬테레이 대학교 틀랄판 캠퍼스 <한국의 날> 행사 개최
- 2015.4월 인터콘티넨탈대학교 축제 한국관 운영
- 2015.5월 멕시코시티 세계우정문화축제 참가
- 2015.6월 멕시코시티지하철 환승역내 한국홍보 사진전 <대한민국의 아름다움과 그 자연> 개최
- 2015.7월 2015 KBS K-Pop 월드페스티벌 멕시코 예선대회
  * 보컬부문 우승자 Ryan 창원 결선 진출 및 보컬 최우수상 수상(2015.10)
- 2015.9-10월 중남미 최대 민간극장체인 Cinepolis 최초 한국영화제
- 2015.10월 제 4회 멕시코 국립영화관 한국영화주간
- 2015.10월 제 7회 KF 중남미 한국학회 개최(UAM 소치밀코)
- 2015.10월 제 2회 한국문화원 한국어 말하기대회
- 2015.11월 제 2기 국립국악원 해외국악학교 전통춤 강습회
- 2015.11월 멕시코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실 재개관식
- 2015.11월 친한 외국인 기반 마련 몬테레이 한국문화주간 행사
- 2015.11월 중남미 문화콘텐츠 카라반 <MIP Cancun 2015> 참가
- 2015.12월 제 1회 <한국문학의 날> 행사

- 2015.12월 Korea Festival in MIKTA <임학선 댄스위> 한국현대 창작춤 공연
- 2015.12월 제 1회 K-컬처 서포터즈 초청행사
- 2016.2월 한·멕문화부간 문화창조산업 관련분야 MOU 체결추진
- 2016.4월 대통령 순방계기 한멕문화교류 행사 <K-Soul Festival>
- 2016.6월 문화원 대표브랜드사업 멕시코시티 지하철 한국홍보사진전 <대한민국의 아름다움과 국립공원>
- 2016.7월 2016 K-Pop 월드페스티벌 멕시코예선
- 2016.8월 제 1기 멕시코 K-Pop아카데미 개최
- 2016.9월 제 3회 한국문화원 한국어 말하기대회
- 2016.9월 몬테레이대학교 한국문화제 개최
- 2016.9월 멕시코 외교부 주최 제1회 세계전통음식문화축제 참가
- 2016.10월 제 3기 국립국악원 멕시코 국악학교 개최
- 2016.11월 중남미 방송콘텐츠 마켓 <MIP Cancun 2015> 참가
- 2016.11월 제 5회 멕시코 한국영화주간
- 2016.12월 제 1회 멕시코 한국문화제 <한국바로알리기>
- 2016.12월 멕시코 한국무형문화재특별주간
- 2017.1월 한국기초조형학회 국제초대작품전 <문명의 기억과 조형>
- 2017.3월 K-CON 멕시코 개최
- 2017.3월 한국문화원 5주년 기념식
- 2017.5월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멕시코 본선

- 2017.5월 제 1기 K-FOOD 아카데미 개강
- 2017.5월 2017 멕시코시티 세계우정문화축제 및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기원 공연
- 2017.6월 멕시코 관광부 청사 한국종합홍보행사 <한국의 정수>
- 2017.7월 K-POP 월드페스티벌 멕시코 본선
- 2017.8월 K-FOOD 품평회
- 2017.8월 제 2회 멕시코 한국문화제(메리다시)
- 2017.9월 국립문화박물관 한국민화전시 <한국의 색채>
- 2017.10월 국제마야문화제 <지구생태보전을 위한 유구한 문명의 세계관과 신화> 참가
- 2017.11월 멕시코 강진피해 위로 한국월드뮤직 콘서트 <TODO COREA PARA MEXICO>
- 2017.12월 제 1회 멕시코 바둑페스티벌
- 2018.3월 한-멕 음악교류 콘서트 <아리랑 심포니>
- 2018.3월 K-Drama 한복패션쇼
- 2018.4월 2018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 2018.7월 2018 한국현대미술특별전 <한국의 세 거울>
- 2018.7월 제 3회 한국문화축제 in 치아파스
- 2018.8월 IPN 국제도서전 주빈국 참가
- 2018.9월 라디오센트로 <K-POP 파티>
- 2018.10월 국립문화박물관 <세계의 죽음에 대한 인식> 전시 참가
- 2018.10월 산타루시아국제문화제 경기도립국악단 공연

- 2018.11월 제 2회 바둑페스티벌 판아메리카 토너먼트
- 2018.12월 아리랑 콩쿠르
- 2018.12월 국기원 시범단 공연
- 2019.1월 K-콘텐츠 엑스포
- 2019.2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회화전 <자유의 기억>
- 2019.3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OFUNAM 첼리스트 여미혜 협연
- 2019.4월 제 4회 한국문화축제 in 베니토 후아레스
- 2019.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국립국악원 특별공연 <희망>
- 2019.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멕시코페스티벌 손열음 초청연주회
- 2019.4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역사기록사진전 <자유를 위한 투쟁: 피, 땀 그리고 승리>
- 2019.5월 메리다시 한국의 날 제정식 및 기념콘서트
- 2019.5월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멕시코 본선
- 2019.6월 멕시코시티 세계우정문화축제 참가
- 2019.8월 국립문화박물관 HALLYU FEST
- 2019.8월 광복 74주년 기념 특별공연 <평화를 위한 심포니>
- 2019.9월 멕시코 태권도 전파 50주년 기념 행사
- 2019.10월 제 3회 블랙캔버스 영화제 장우진 감독 초청행사

12. 재외국민 및 후손사회 현황

가. 동포사회 형성 배경

1) 한인후손 이민

ㅇ 1905.4.4. 일본 인력송출회사가 모집한 아국인 1,033명이 제물포항을 출발, 동년 5.4. 멕시코 태평양 연안 Oaxaca주 Salinas Cruz항에 도착

ㅇ 멕시코만 Coatzacoalcos항까지 철도로 이동, 다시 선박을 이용 Progreso 항까지 가서 유카탄주 Merida 지역내 22개 에네켄(Henequen: 선박용 등 밧줄원료를 만드는 선인장의 일종) 재배농장에 분산 정착

2) 한국 국적자 이민

ㅇ 1967년 우리 국적 동포의 최초 이민자가 티후아나에 정착

ㅇ 1997년 이전 우리 국적 동포수는 1,000여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 10월 현재 총 동포수는 약 12,000여명으로 추산

ㅇ 우리 국적 동포수의 급격한 증가 배경

- 1997년 본국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다수의 본국 국민들이 미국 진출 등을 위한 중간 경유지로서 멕시코로 이주
- 당시 경제불황에 시달리고 있던 중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에콰도르 등) 거주 동포들이 멕시코로 대거 재이주

나. 한국 국적 동포사회 현황

ㅇ 현재 우리국적 동포는 약 12,000명으로 대부분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티후아나, 몬테레이, 푸에블라 등 상공업 도시에 거주

ㅇ 멕시코시티 거주 동포는 6,000여명이며, 대부분이 섬유·의류·잡화 유통 및 요식업 등 중소 서비스업종에 종사

ㅇ 동포들의 주요 영업지역이 치안불안 구역이어서 강도 등 강력범죄 위험에 노출

다. 한인후손사회 현황

ㅇ 후손은 현재 3-5세로서 약 3만명으로 추정되며, 모두 멕시코 국적이고 우리말을 거의 구사하지 못함

- Mérida(5,000명), Mexico City(2,000명), Tijuana(1,500명), Coatzacoalcos(500명), Campeche(300명), Cancún 등 6개 지역에 한인후손협회 결성

ㅇ 현재 상류층에 편입된 후손들은 많지 않으며, 일부 소수가 정계, 법조계, 고위공무원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

- '치와와' 주 연방 하원의원 역임 및 현 치와와시 자문위원(Nora Yu)
- 전 멕시코 연방 하원의원(Lizabeth Loy Gamboa Song)
- '유카탄' 주 지역사령관(Adres Fernando Aguirre O. Sunza)

ㅇ 재외동포재단 주관으로 한인후손들에 대한 방한초청 직업훈련,기술연수 사업 및 모국체험연수 실시

ㅇ 2019년 유카탄반도 캄페체시, 메리다시, 유카탄주는 최초 한국이민 멕시코 도착일(5.4.)을 '한국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축하공연·거리 행진 등을 통해 한인후손들의 자긍심을 제고

- 1905년 유카탄에 도착한 이후 어려운 생활환경을 극복하고 모범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유카탄 사회 발전 및 문화 다양성에 기여한 점을 평가

13. 명예영사

ㅇ 주한 멕시코명예영사

- 부산명예영사 :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2007.9.20 인가)
- 대구, 경북, 충북명예영사 : 윤준식 (주)인터불고그룹 대표이사 (2008.11.3 인가)

ㅇ 주멕시코 한국명예영사

- 과달라하라 명예영사 : Rodrigo Ramos Garibi
- 몬테레이 명예영사 : Gregorio Canales Zambrano
- 티후아나 명예영사 : Xavier Peniche Bustamante(인가절차 진행중)
- 메리다 명예영사 : Eduardo Jose Abraham Xacur(인가절차 진행중)

14. 군사교류

가. 양국 무관부 설치

- ㅇ 1973.9월 주멕시코 한국 무관부 설치
- ㅇ 1989.6월 주한 멕시코 국방무관부 설치
- ㅇ 1992.11월 주한 멕시코 해군무관부 설치

나. 최근 양국 주요인사 교류

- ㅇ 2010.8월 국방 정보본부장 방멕
- ㅇ 2011.9월 국방대학 총장 방멕
- ㅇ 2012.8월 국방부 정책실장 방멕
- ㅇ 2014.9월 합참의장 방멕
- ㅇ 2014.12월 국가보훈처장 방멕
- ㅇ 2015.9월 재향군인회장 방멕
- ㅇ 2015.9월 멕시코 국방차관 방한
- ㅇ 2016.3월 국방 해외정보부장 방멕
- ㅇ 2016.6월 방사청 방산진흥국장 방멕
- ㅇ 2016.9월 멕시코 국방감찰감 방한

- ㅇ 2017.4월 멕시코 해병대사령관 방한
- ㅇ 2017.9월 멕시코 국방감찰감 방한
- ㅇ 2018.3월 멕시코 정보국장 방한
- ㅇ 2018.4월 국방 해외정보부장 방멕
- ㅇ 2018.9월 해병대사령관 방멕
- ㅇ 2018.9월 멕시코 해군차관 방한
- ㅇ 2018.9월 멕시코 국방사무총장 방한
- ㅇ 2019.4월 한.공군방공관제사령관 방멕
- ㅇ 2019.5월 한.국군간호사관학교장 방멕
- ㅇ 2019.6월 한.국방 해외정보부장 방멕
- ㅇ 2019.9월 한.국방대학교 부총장 방멕(국방대 안보과정)
- ㅇ 2019.10월 멕시코 공군사령관 방한

다. 최근 양국 해군 상호 교환방문 / 기항

- ㅇ 2009.5월 멕시코 해군 원양실습함(Guatemoc호) 인천 방문
- ㅇ 2012.10월 한국 해군 순항훈련전단 Acapulco 방문
- ㅇ 2015.12월 한국 해군 순항훈련전단 Acapulco 방문
- ㅇ 2017.12월 멕시코 해군 원양실습함 부산 방문

ㅇ 2018.10월 한국 해군 순항훈련전단 Acapulco 방문
(2018년 기준, 총 11회 방멕)

라. 주요 협정 체결

ㅇ 2018.3월 한-멕 정보교류 MOU 체결

IX

북한과의 관계

1. 대북한 정책
2. 북한관계 연표
3. 협정 체결
4. 인사 교류
5. 북한 원조 현황
6. 통상 관계
7. 친북단체



1. 대북한 정책

○ 멕시코 정부는 전통적인 보편주의 외교정책에 입각, 세계 각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방침하에, 북한과 '80.9월 수교후 '92.3월 상주공관 설치를 허용

○ 멕시코 정부는 '98.1월 북한공관원 2명의 코카인 35kg 밀반출 사건을 계기로 김찬식 대사 추방 및 공관원 숫자 축소, 북한외교관 체류비자 기간 및 북한인 출입제한 등 대북제재 조치를 실시

※ 상기 마약 밀반출 사건('98.1월)으로 북한공관은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된 바 있으며, 한동안 양국관계 소원

○ 이후 북한은 '01.8월 궁석웅 외교부상의 파견을 통해 멕시코와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하였으며, '02.3월 리강세 대사의 신임장 제정 후 양국관계가 다소 정상화

※ 멕시코는 주한대사가 북한 겸임

○ 2009년 이후 멕시코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적극적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UN 등의 대북제재 조치에 적극 참여하면서 양측간 교류협력 관계는 미미

○ 멕시코 정부는 '17.9월 북한 6차 핵실험을 계기로 김형길 대사를 추방하고 공관 직원 1명을 축소

<북한 관련 한-멕시코 공조 사례>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외교부 성명 발표(2012.12.14.)
- 한반도 대화 재개 촉구 외교부 성명 발표(2013.4.2.)
- 북한 3차 핵실험 규탄 외교부 성명 발표(2013.2.15.)
- 제2차 MIKTA 외교장관회의 북핵 관련 별도 성명 채택 참여 (2014.4.14.)
- 멕시코 정부, 멕시코 연안에서 좌초된 북한 무두봉호를 환경 파괴 혐의로 멕시코 툭스판항에 억류(2014.7월)
  - 2016.4월 선박 몰수 및 해체 결정 후 동년 10월 해체
- 북한 4차 핵실험 규탄 멕시코 외교부 성명 발표(2016.1.6.)
- 멕시코 의회,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결의 채택(2016.1.21.)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멕시코 외교부 성명 발표 (2016.2.7.)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2016.7월)
-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규탄 성명(2016.8.3.)
-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 규탄 성명(2016.9.9.)
-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규탄 성명(2017.3.6.)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 제출(2017.5월)
-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규탄 성명(2017.5.16.)
-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규탄 성명(2017.7.4.)
-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규탄 성명(2017.7.28.)
-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규탄 성명(2017.8.26.)
-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규탄 성명(2017.8.29.)
-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 규탄 성명(2017.9.4.)

-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규탄 성명(2017.9.14.)
-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규탄 성명(2017.11.29.)
- 대통령 특사단 방북결과에 대한 정부 환영 성명(2018.3.9.)
-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지 결정에 대한 정부 환영 성명(2018.4.21.)
-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부 환영 성명(2018.4.27.)
-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에 대한 정부 성명(2018.5.24.)
-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정부 환영 성명(2018.6.12.)
-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부 환영 성명(2018.9.19.)

2. 북한관계 연표

- ㅇ 1980.9월 멕시코-북한수교
- ㅇ 1992.3월 북한 상주공관 설치 허용
- ㅇ 1993.9월 북한 상주공관 개설
- ㅇ 1994.5월 초대대사 김찬식 신임장 제정
- ㅇ 1996.6월 조선국제보험회사 사무소 개설
- ㅇ 1998.2월 김찬식 대사 추방
- ㅇ 1999.8월 공사참사관 최기복(대사대리) 부임
- ㅇ 2002.3월 리강세 대사 부임
- ㅇ 2005.3월 서재명 대사 부임
- ㅇ 2010.3월 안근성 대사 부임
- ㅇ 2015.8월 김형길 대사 부임
- ㅇ 2017.9월 김형길 대사 추방

3. 협정 체결

ㅇ	1990.9.4.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합의서
ㅇ	2001.8.1.	북한 원산시-푸에블라州 자매결연 협정
ㅇ	2006.1.31.	북한-푸에블라州 과학기술, 체육, 도시개발, 문화 협력협정
ㅇ	2008.1.31.	북한-두랑고州 보건, 치안, 체육, 도시건축 협력협정
ㅇ	2008.4.16.	북한 강원도-푸에블라州 자매결연 협정
ㅇ	2008.6.25.	북한-멕시코 교육·문화 협력협정
ㅇ	2008.6.30.	북한-오아하카州 침술, 전통의학, 체육 협력협정
ㅇ	2011.5.14.	북한-두랑고州 보건 협력협정
ㅇ	2013.11.8.	북한-모렐로스州 문화교류협정
ㅇ	2014.1.30.	북한-두랑고州 체육센터 협력협정

4. 인사 교류

가. 북한인 멕시코 방문

- ㅇ 1997.11월 노동당대표단(COPPPAL총회 참석)
- ㅇ 1998.2월 노동당대표단(국제회의 참석)
- ㅇ 1998.5월 외교부대표단(최기복 중남미국장, 마약밀매사건 상조사 및 대멕시코 관계 정상화 모색)
- ㅇ 1998.10월 노동당 대표단(상파울로 포럼 참석)
- ㅇ 1999.2월 노동당 대표단 김향산 외 1인(국제좌익정당 회의)
- ㅇ 1999.5월 노동당대표단(주재국 노동당연수원 창설 지원)
- ㅇ 1999.11월 농업과학원 대표단
- ㅇ 2000.2월 김길환 주쿠바대사
- ㅇ 2001.2월 노동당 대표단(좌익정당 세미나 참석)
- ㅇ 2001.8월 궁석웅 외교부상(외교관계 정상화 요청)
- ㅇ 2008.4월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대리
- ㅇ 2008.6월 김형준 외교부상
- ㅇ 2008.9월 사회과학자협회 대표단
- ㅇ 2009.3월 노동당 대표단(김태동 노동당 국제부국장, 국제좌익정당회의)

- ㅇ 2009.11월 로정남 대외전람총국장
- ㅇ 2010.5월 허영복 외무성 미주국장
- ㅇ 2010.9월 김형준 외교부상
- ㅇ 2012.3월 노동당 대표단(국제좌파정당 세미나 참석)
- ㅇ 2013.3월 노동당 대표단(국제좌파정당 세미나 참석)
- ㅇ 2014.3월 노동당 대표단(국제좌파정당 세미나 참석)
- ㅇ 2017.3월 노동당 대표단(국제좌파정당 세미나 참석)
- ㅇ 2018.7월 허용복 외무부상(멕시코 외교차관 면담)
- ㅇ 2018.11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멕시코 대통령 취임식(12.1.) 참석)
- ㅇ 2019.4월 노동당 대표단 3명(국제좌파정당 세미나 참석)

나. 멕시코 인사 북한 방문

- ㅇ 1981.8월 Echeverría 전 대통령(멕시코 제3세계 경제사회 문제 연구소장), 평양 개최 세계식량문제 세미나 참석
- ㅇ 1982.4월 멕시코 하원의원단(단장 : Marco Muñoz 공업분과위원장)
- ㅇ 1990.10월 Jaime Enrique 외 6명, 노동당 창건일 기념행사 축하단
- ㅇ 1991.4월 Guadalupe Maganda 외무위원장 외 1명, 평양 개최 IPU 총회 참석

- 1991.6월 Vázquez Raña, El Sol de México지 사장 겸 ANOC 위원장, 김일성 면담 특집취재
- 1992.4월 Sánchez 상원의원(PRI) 등 상하원의원 4명, 김일성 생일행사 참석
- 1996.4월 멕시코 노동당 Alberto Anaya 당수 등 대표단
  ※ 4.26 멕시코 노동당과 조선노동당 사이의 협조에 관한 합의서 체결
- 1996.9월 멕시코 노동당 대표단 8명, 9.9절 행사 참석
- 1998.4월 멕시코 노동당 대표단(Alberto Anaya 총재 부인 등 10명), 김일성 생일행사 참관
- 1999.4월 멕시코 노동당대표단(Guadalupe González 하원의원 등 4명), 김일성 생일행사 참관
- 2003.4월 멕시코 노동당 간부(José Roa Rosas), 김일성 생일 행사 참석
- 2008.4월 멕시코 주체사상연구소장(Juan Campos Vega), 주체사상 연구세미나 참석
- 2008.4월 노동당 대표단, 9.9절 행사 참석
- 2008.4월 노동당 대표단 6명, 10.10절 행사 참석
- 2011.4월 멕시코 노동당 대표단 4명, 김일성 생일 100회 국제준비위원회 참석
- 2012.4월 멕시코 노동당 대표단 방북(김일성 생일 100회 기념행사)
- 2013.7월 멕시코 노동당 대표단 방북(정전 60주년 기념행사)

- ㅇ 2014.4월 멕시코 노동당 대표단 12명 방북(김일성 생일)
- ㅇ 2014.6월 멕시코 노동당 여성대표단 방북
- ㅇ 2017.4월 멕시코 노동당 대표단 8명 방북
- ㅇ 2017.7월 멕시코 노동당 대표단 20명 방북
- ㅇ 2018.9월 멕시코 노동당 3명 및 인민사회당 총비서 9.9절 행사 참석
- ㅇ 2019.7월 멕시코 노동당 대표단 10명 방북

5. 북한 원조 현황

ㅇ 없음

6. 통상 관계

ㅇ 2018년 주재국 경제부 통계치에 따르면 대북 교역 없음.

7. 친북단체

ㅇ 멕시코-북한 친선협회

ㅇ 조선통일지지 멕시코 위원회

ㅇ 멕시코 주체사상위원회

ㅇ 멕시코 주체사상연구소

멕시코 개황

· **인　쇄** | 2019년 11월
· **발　행** | 2019년 11월
· **발행처** | 외교부 중남미국 중미카리브과
· **인 쇄·제 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쇄사업소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